금주의 법구–〈열반경〉
선각자는 지혜로운 의사다
증상에 따라 약을 주어
마음병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6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0월 3일)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한마음선원은 10월 20일 안양본원서 '대행선사 동상 제막식'을 봉행했다. 제막 후 명예 원로의원 밀운 스님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들이 기념촬영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빛으로 온 대행선사, 한마음도량 밝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 대행선사 동상 봉립

글=윤호섭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교화에 평생을 매진한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동상이 한마음 정진도량에 우뚝 섰다. 5천여 사부대중의 환희 속에 대행 선사는 원적 8년 만에 빛으로 다시 돌아왔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0월 20일 안양본원서 '대행 선사 동상 제막식'을 거행했다. 동상 조성은 생전에 자신과 제자들마저 없을 때 대중의 의지처를 염려한 대행 선사가 남긴 유지에 따라 이뤄졌다. 무엇보다 미래 불자들의 지표가 되도록 돕기 위해 한마음선원 사부대중이 뜻을 모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술적 가치 담아낸 동상

대행 선사 동상은 권대훈 서울대 조소과 교수가 2016년 3월 조성을 시작해 2019년 10월 완성했다. 주재료는 청동이며, 두 개의 돌 좌대가 겹쳐져 동상을 받치고 있다. 주물은 송창일 주조명장이 맡아 용접 없이 통으로 동상을 제작했다. 아래 좌대에는 연잎 모양의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고, 그 위에는 연밥 모양의 좌대가 올려져 연화좌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좌대의 높이는 65㎝, 동상 높이는 2m85㎝ 이다.

동상 아래에는 심주관을 건립하고 중앙에 심주석(心柱石)을 세웠다. 심주석은 심주관 1, 2층을 관통해 동상을 받치는 기둥으로서, 심주관 안으로 들어가야 볼 수 있다. 한마음선원에 따르면 이는 일체가 들고 나는 한마음의 근본자리에 우뚝 세워진 마음의 불기둥을 상징한다. 기둥 상단 구름은 하늘을, 하단 연꽃은 땅을 표현하고, 중앙에는 법륜이 돌아가는 형상을 구현했다.

심주석에는 대행 선사의 법어 중 '마음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으니 마음의 길을 인도해준다는 것은 진짜 보배를 찾아주는 것과 같다'를 새겼다.

동상을 장엄하는 화엄석은 7개 돌기둥으로, 동상 뒤에 탱화처럼 펼쳐져 있다. 가운데 5개는 한마음의 작용 원리인 공생(共生) · 공심(共心) · 공용(共用) · 공체(共體) · 공식(共食)의 이치를 드러내고, 양쪽 두 개의 돌기둥은 재가와 승단이 둘 아닌 더불어 수행한다는 뜻을 담았다. 화엄석은 석주조각원 김동철 명장이 조성했으며, 칠은 문화재기능인 김종민 황칠장이 1년여간 모은 황칠액으로 황칠과 옻칠, 생칠을 번갈아했다.

각계 축하인사 잇달아

이날 행사는 한마음선원 5층 법당의식으로 시작됐다. 동상 불사 제작과정이 담긴 영상이 상영되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이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원행 스님은 "사부대중은 동상 봉립을 통해 스님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가르침을 새겨 하심하는 계기로 삼아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성우 스님은 "대행 스님께서 생전에 하신 법문이나 자비행을 본다면 동상은 전국 인연 있는 곳에 더 많이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 한마음선원에 봉립된 대행선사 동상.

대행 선사 원적 8년째 맞아
평생 대중 의지처 염려해온
선사 유지로 3년간 동상 제작
권대훈 서울대 교수 디자인
송창일 · 김종민 명장 등 참여

5000여 사부대중 함께 축하
수행정신 · 포교원력 되새겨

이어 야외서 진행된 동상 제막식에서 대행 선사의 동상이 드러나자 사부대중은 일제히 감탄사를 내뱉었다. 중생교화에 앞장선 자비로운 인상과 수행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던 진지한 모습을 담아낸 대행 선사의 동상에 각계 주요 인사들은 축하의 말을 전했다.

명예원로의원 밀운 스님은 "한마음선원 대중은 대행 스님 동상을 예경할 때 예경만 하지 말고, 법문을 다시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원로의원 일면 스님은 "몸이 아플 때 해주신 '육신이 나라고 믿는 사람은 인생이 고(苦)이지만,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은 자유로울 것'이라는 말씀을 새기며 살고 있다"고 대행 스님과의 인연을 밝히며 동상 봉립을 축하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대행 스님의 자애롭고 혁신적인 포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넘어 법형제까지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고 선사의 포교원력을 기렸다.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은 "모두가 대행 스님의 면모를 되새겨 수행정신과 포교원력을 함께하는 불자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대행 스님은 한국불교계의 비구니로서 큰 족적을 남겼다. 대중은 진실한 불교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선원 대중 "마음공부 더 정진"

한마음선원 신도들은 동상 제막에 맞춰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굳은 서원으로 정진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에서는 청년회가 돈을 모아 왕복 50시간의 비행을 거쳐 제막식에 참석해 감동을 전했다.

박종수 안양본원 신도회장은 국내외 지원 신도회를 대표해 "마음공부는 그 자체가 진리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며 간절하게 관하는 정진 속에서 세세생생 스님을 만나겠다. 앞으로도 늘 저희들과 함께해주시길 발원 올린다"고 봉헌사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오늘은 선원 대중에게 정말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다. 스님 눈길 한 번, 한 말씀에 모든 대중이 마음을 녹이며 살아 왔다"며 "앞으로도 큰 스님을 뵈면서 가르침대로 화합하며 살아가겠다. 또 주변 어른 스님들께서 당부하신 대로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동상 제막식에는 명예원로의원 밀운 · 혜승 스님, 원로의원 일면 · 원행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한국명상협회 이사장 혜거 스님, 조계종 제4교구본사 주지 정념 스님, 동국대 前총장 보광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한마음선원 전국 · 해외 지원장, 이종걸 · 유민봉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 유튜브 부족
외연 확장 필요

유권준 팀장, 포교연찬회서

'키즈 시장 40조원 돌파' 등 뉴미디어 도래로 사회 각 분야 시장의 성장이 이뤄지는 가운데 불교 뉴미디어 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한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조계종 포교원이 10월 24일 진행한 제79차 포교종책연찬회 '포교의 새로운 활로, 유튜브 포교'서는 유권준 BBS불교방송 뉴미디어 팀장이 불교 유튜브 시장의 협소함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외연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날 연찬회서 '한국불교의 뉴미디어 전략과 정책과제'를 발표한 유권준 팀장은 외연 확대를 통한 시장 확대와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 팀장은 외연 확대에 대한 종단 차원 접근 방

불교콘텐츠 총 구독 186만명
법륜 스님 채널 빼면 77만명
시장 부족, 수익 23억원 미만
"콘텐츠 진흥 기금 운영 확대"

안으로 △문화재관람료 1% 불교콘텐츠 진흥기금 활용 △불교 콘텐츠 공공 아카이브 구축 △불교콘텐츠 제작지원센터 구축 △유튜브 아카데미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포교사 양성 및 활용 △청소년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운영 △중장기 불교 스토리뱅크 사업 진행 등을 제안했다.

유 팀장은 "결국 유튜브는 개방과 참여, 자율과 창작이라는 근본 작동원리로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불교 유튜브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자율보장 등이 이어져야 한다. 시장확대를 통해 불법홍포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날 발제와 토론에서는 조계종 불교크리에이터 1기로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강산 씨와 도연 스님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강산 씨는 "사람들은 자극적인 영상을 좋아하지만 종교콘텐츠인 만큼 소통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노덕현 기자

묘공당 대행선사 동상 봉립 법회 회향 인사



은사 스님의 깊고 간절한 중생 구제의 원력과 가르침이 후대에도 면면히 이어져 마음 근본을 밝히는 공부가 끊어짐이 없기를 발원하며 봉행되었던 동상 제막 법회에 참석해주신 제방의 비구 비구니 대덕 큰스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마음선원 사부대중들은 앞으로도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여법하게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합장

조계종 대종사 자격요건 강화 추진

종헌특위, 승랍 · 연령 외에 별도 자격요건 추가키로

조계종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 자격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는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 법계의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법계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현재 대종사의 자격요건은 승랍 40년과 연령 70세 이상의 종사법계 수지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 별다른 자격요건이 명시되지 않아 현행 기준시 대종사 자격요건을 갖춘 스님이 65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서는 승랍 기준을 강화할 시 출가연령이 평균 40대인 현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대종사도 법계의 하나이기에 문턱을 높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대종사는 삼장법사와 같은 수행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승랍과 연령만으로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종헌특위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종헌특위는 대종사 현행 자격요건에 △중덕법계 품수 후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서 20안거 이상 성만 △원로의원 · 총림방장 · 총무원장 · 중앙종회의장 · 호계원장 · 교육원장 · 포교원장 등을 역임 △교구본사주지 4년, 각급 위원회 위원장 4년, 중앙종회의원 8년, 교육법에서 정한 교직자로 재직 20년 이상을 추가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 같은 법개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중앙종회 정기회에 발의키로 결의했다.

윤호섭 기자



국화꽃 도량 속 童心세계 국화꽃이 만발한 서울 조계사에서 어린이들의 동심세계가 하얀 도화지 위에 펼쳐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10월 23일 조계사 일원에서 제12회 아동미술큰잔치를 개최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원아 500여 명은 국화꽃이 만발한 조계사에서 그림을 그리고, 나무팽위와 단주, 연꽃등을 만들며 동심을 키웠다. 사진은 재단 대표이사인 원행 스님이 축제 현장을 둘러보며 아이들에게 직접 단주를 채워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모습.

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사회복지재단

조계사 · 봉은사 · 보문사 주지 유임

연등회 사무국장 · 호법부 상임감찰 인사 단행

조계종 직영사찰인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강화 보문사 주지인 지현 스님, 원명 스님, 선조 스님이 모두 유임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0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직영사찰 관리인으로 지현 스님과 원명 스님, 선조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현직 주지의 재임 결정은 스님들이 앞서 수년간 안정적으로 도량을 관리해 온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사부대중이 힘을 합쳐 종단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영사찰 스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종단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화합하고, 일사분란하게 큰일을 해나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직영사찰 주지스님들은 "안정적으로 사찰을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원행 스님은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에 혜원 스님을, 호법부 상임감찰에 선적 스님을 임명하는 등 일부 교역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호섭 기자**

"마음 빛 밝혀야 삶의 주인공"

진각종, 제13대 총인 경정 대종사 추대법회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10월 24일 진각문화전승원서
"본분사 다하면 正道 걷는다"
14일 법통승수식서 법맥 이어
사부대중 1000명 동참해 축하



진각종 제13대 총인으로 추대된 경정 대종사.

진각종 제13대 총인 경정 대종사 추대법회가 10월 24일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성대히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경정 총인은 법어를 통해 "진리법은 본체요, 현실의 일은 그림자라 일렀다. 불교가 본분사를 다하면 사회도 정치도 정도를 걷는다. 진리법은 세속에 머물면서 세속을 초월한다"며 "상대자의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는 가르침이 있다. 타인을 탓하기 전에 근본이 되는 나를 먼저 보아야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평화롭게 된다"고 설했다. 이어 경정 총인은 "우리의 본성은 광명이다. 마음의 빛을 밝히면 제 자리를 찾아 삶의 주인공이 된다"고 덧붙였다.

봉행위원장 회성 정사(통리원장)도 봉행사를 통해 "오늘은 이 땅 밀교의 법맥을 전수상승하는 법통의 상징이며 존엄한 선지식의 추대를 만 중생에게 알리는 희망의 자리"라며 "우리들은 제13대 총인 추대법회를 봉행하면서 이 인연으로 진각성존 회당대종사께서 증득하시고 가르치신 길을 따라 심인지리의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총금강회장 익정 각자는 추대사를 통해 "경정 대종사님을 제13대 총인으로 추대하면서 전국의 스승님과 진언행자가 다시 하나 되기를 발원한다"며 "신교도들이 환희하게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어야 한다. 종단발전협의회를 통해 진각인에 의한, 진각인을 위한, 진각인의 3대 가치인 청정, 혁신, 화합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봉행위원 덕정 정사(교육원장)는 강도발원문에서 "부처님의 가지원력과 종조님의 무진서원으로 진각의 법통을 승수하신 총인예하의 법체가 더욱 강건하고 법력 승수하시어 종단의 법통이 성스럽고 엄정하게 지켜지길 서원한다"며 "종단이 그동안 쌓아온 정진력을 경험으로 삼아 이룩한 대작불사를 바탕으로 진각종지의 실현을 위한 용맹정진을 새롭게 하여 밀교문화의 찬연한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도록 힘쓰겠다"고 발원했다.

경정 총인은 앞서 14일 법통승수식을 통해 △총인 낙자 가지 △심인교계(心印敎誡) 승수 △법인장(法印章) 인계 등 법통승수작법을 거쳐 한국밀교의 법맥을 이었다. 경정 총인은 회당대종사 전에 "이제 총인에 취임함에 즈음하여 불의를 준봉하고 법통을 승수 실천하며 종단의 발전과 불법의 호지를 절대목표로 함으로써 종단 내지 전 세계 불자와 전 인류를 위하여 현세정화 복지증진을 성취할 총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지민 스님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자주권 침해 세계유산관리법 폐기하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 종단차원 공식입장 밝혀 내년 예산안도 일부 공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가 세계유산관리법 폐기 촉구를 논의하고 있다.

"세계유산특별법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불교와 종단의 자주적 관리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단호히 배격하며, 이 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가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관리법)' 입법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추진되는 세계유산관리법이 전통사찰 소유의 세계유산까지 국가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6년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계유산관리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국가의 재정지원을 법으로 명시한 법안이다. 하지만 '한국의 산지승원'이 2018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교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도 이 사안을 뒤늦게 인지, 중앙종회와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정진석 의원은 "세계유산관리법이 불교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불교계의 지적을 확인했다"면서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불교계의 의견을 100%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법사위에서는 자구 수정만 가능해 조계종이 법안 폐기를 촉구한 것이다.

비공개 회의서는 세계유산관리법 폐기 촉구 외에 불기2564(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와 백만원력 결집불사 현황 보고가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5%가량 증가한 약 295억 원, 특별회계는 5.6%가량 증가한 약 753억 원으로 책정됐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교구 및 사찰 분담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중앙종무기관 특성상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고, 책임과 역할을 올바르게 하고자 사업내용을 토대로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며 "내년에는 종단의 목적불사가 실질적인 시행으로 이어지도록 예산안을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원행 스님은 최근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각 교구본사별로 교구대법회를 봉행한 데 이 같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지난 4월 선포식을 시작으로 추진위원 88명을 위촉하고, 교구 및 직할사찰에 발우저금통 6만5000여개를 배포했다. 지난 9월에는 조계사 외 11개 사찰의 저금통 1322개를 회수했으며, 이번 달부터 교구별 대법회가 진행 중이다.

교구대법회는 10월 5일 제19교구본사 화엄사부터 현재까지 동화사, 월정사, 수덕사, 은해사, 범어사가 동참했다. 이어 오는 12월에는 통도사와 금산사의 교구대법회도 예정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본사는 교구대법회를 대신해 거액의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을 기탁하는 등 전국적인 성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를 향한 우려와 걱정의 시선을 걷어내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정진해온 시간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여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심사위원회는 24일 세계유산관리법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고, 제2소위로 회부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00돌 '청련암 만일계' 21세기 신행 모델"

고성 옥천사, 10월 26일 정토불교학술세미나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고성 옥천사 청련암 만일계가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1950년대 이후 잠시 휴지기가 있기는 했지만 만일계 전통을 이어 받은 수행공동체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근현대를 관통해 지금까지 활동 중인 청련암 만일계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성 옥천사 성보박물관(관장 원명)과 정토불교학술세미나모임은 10월 26일 옥천사 자방루에서 '고성 옥천사 사찰계와 문화유산' 을 주제로 제6회 정토불교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안경식 부산대 교수는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옥천사 청련암 만일계에 대해 조명했다. 안 교수는 만일계의 전말을 옥천사에 남아 있는 계원모집문과 계책을 통해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만일계 창립을 주도한 인물은 당시 청련암에 주석하고 있던 서응 스님이다. 스님은 1919년 7월 15일 쓴 모집문에서 "고(苦)의 윤회를 끊고 극락왕생"을 강조하며 염불수행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사찰에서는 법사 스님이 하루 4번 염불하도록 하고 봄 가을로 아미타불전에 불공을 올릴 것도 제언했다.

안 교수는 "이 같은 계는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신라시대부터 지역에 있었던 만일계의 역사를 계승한다는 뜻"이라며 "서응 스님이 발원문의 거의 대부분을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채웠다는 것은 옥천사에서 만일계를 만든 동기 중 하나로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옥천사에 소장된 〈만일계책〉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총 6권인 계책은 일종의 계원 명부로 △거주지 △복위자 성명 △축원자 성명 △입계금 등이 기록돼 있다. 이를 통해 만일계의 전말이 가늠된다.

안 교수에 따르면 시작은 1919년 10월 15일이며, 끝은 알 수가 없다. 만일결사로 가정했을 경우 계는 1947년 초에 회향해야 하지만, 계의 기록은 6.25한국전쟁을 지난 1957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다.



옥천사 청련암 만일계책 1권〈사진 왼쪽〉과 옥천사 칠성계책〈사진 오른쪽〉 표지. 모두 사찰계로 근대불교의 신행 문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청련암 만일계 · 사찰계 조명 '눈길'

만일계, 서응 스님 1919년 창립

"지리산 염불계 전통 계승" 주장

옥천사 鮮末부터 11개 사찰계 운영

재정 · 수행 도움… 배불 극복 동력

참여자는 약 500여 명이 동참했으며, 승속 구분없이 참여했다. 승려로는 옥천사 사중 스님들이 많았다. 지역적으로는 진주와 고성, 통영이 중심이었으나 서울과 만주, 외국에서도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입계를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헌납하는 입계금이 있었지만,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957년 이후 잠시 단절됐던 만일계는 지난 9월 2일 입적한 故승욱 스님에 의해 다시 이어진다. 1996년 승욱 스님은 만일계를 '정토만일봉사회'로 새롭게 조직하고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만일봉사회는 염불수행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와 아동 복지 등의 사업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안 교수는 "옥천사 청련암 만일계는 신라시대 강주(현 진주) 전통을 바탕한 지리산권 염불계 전통을 이었다"면서 "현재의 만일봉사회는 이 같은 전통을 계승하고 대승보살행을 이루려는 원력도 세웠다. 8세기 강주에서 시작된 만일계가 20세기 초 기미년 만일계를 거쳐 21세기에는 정토만일봉사회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땅을 더불어 사는 극락정토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청련암 만일회는 21세기 한국 만일계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옥천사 사찰계 연구'를 통해 사찰계가 조선 후기 배불 정책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임을 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사찰계는 조선 후기 억불의 시대에 경제적 자구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전했고, 18 · 19세기 많은 사찰에서 각종의 계가 번성하면서 재정을 확충했다. 옥천사에서도 11건의 사찰계가 1744년부터 1966년까지 활동했다. 기록된 사찰계로는 동갑 스님들의 친목 모임인 갑계를 시작으로 불유계, 지계, 인경계, 장등계, 칠성계, 만알계, 정토계, 왕생계 등이 있었다. 이들 사찰계는 신앙활동과 보사활동에 주력했다.

한 교수는 "한 사찰에서 다양한 계가 성행했다는 것은 사찰 재정이 어려웠다는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부찰(富刹)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며 "실제 옥천사는 1920년대 임야가 540정보에 이를 정도로 많았고 이를 기반으로 불교전문강원을 운영했다. 또한 서울과 일본에 유학승을 보내고 부산대 설립기금을 기증했다. 옥천사의 사회 · 교육사업의 밑바탕에는 사찰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학술세미나에서는 김미경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옥천사 청련암 아미타불도 연구'를, 정진희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옥천사 연대암 치성광여래도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지중 한국복지대 교수, 김성순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이희정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등이 참여했다.

文대통령 "국민통합에 종교 역할 기대"

10월 21일 7대 종교 지도자

청와대 오찬 초정 자리서

원행 스님, 공정 · 화쟁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1일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계의 지혜와 역할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1일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계의 지혜와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상춘재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을 앞둔 대한민국에 정치적 · 국민적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종교계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 협치를 위한 노력과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했지만 큰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이 공감을 모으던 사안도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은 더 높아지고, 그 갈등은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편으로 국민들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 대통령인 저부터, 또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종교 지도자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을 푼 글귀를 소개했다.

원행 스님은 오찬에서 의천 스님이 원효대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진 '화백가이쟁지단(和百家異諍之端) 득일대지공지론(得一代至公之論)' 을 언급했다.

이어 스님은 "의천 스님은 원효대사를 온갖 서로 다른 주장의 단서들을 잘 찾아 융합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논설을 이뤄내신 분이라고 평가했다"며 "화쟁의 핵심은 지공(至公)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공정사회는 바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또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가장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시다면, 부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종교지도자들 또한 사회의 통합과 평화, 그리고 보다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국정 운영에 모든 힘을 보태고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교지도자 대통령 초청 오찬에는 원행 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대주교(천주교),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근 성균관장(유교), 송범두 교령(천도교), 오도철 교무(원불교)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윤호섭 기자

'답게 살자' 다짐 캠페인, 불교계서 첫 발

한국사회평화협, 도선사서 캠페인 시작

시민들 대상으로 답게살기 서명 · 인증샷 이벤트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 진행됐다.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이사장 이기흥)는 10월 19일 다짐 릴레이의 첫 행사로 불교계에서 주도해 도선사서 북한산 방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답게살기 캠페인 동참 서명과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서는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이금석) 임원 및 회원 약 3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이번 답게살기 다짐 릴레이 캠페인은 7대 종단 평신도가 중심이 돼 전국 7개 권역에서 각 1,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 및 다짐 서명을 받는다.

노덕현 기자



협의회 대표들과 불자들이 '답게 살겠습니다' 를 선언하고 있다.

10만 불자, '화합' 부처님께 서원하다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문화축제 성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교 저력 보여준 축제 한마당
천명의 스님과 10만 불자 모여
웅장한 법석, 불교 진리 전해

취타대와 오방번이 선두로 나서고 화동이 꽃을 뿌리는 길을 따라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이운됐다. 금어연 속에 이운되는 진신사리를 쳐다보며 10만 명의 불자들과 시민들은 합장하고 오직 화합과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했다. 하나가 된 불교의 힘을 보여주는 범불교도대회가 개최됐다.

불교문화대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경선)는 10월 20일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문화축제를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에서 개최했다.

축제는 오전부터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어 방문하는 시민들을 반겼다. 37개 신행단체가 참여한 역대 최대 부스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불무도, 다도, 탁본 등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을 제공해 오고가는 시민들은 불교문화 속에서 주말을 만끽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 참가자들은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과 법회를 위해 자리를 정돈했으며 화려한 취타대의 소리와 발걸음에 맞춰 진신사리 이운 행렬이 시작됐다. 무대 중앙으로 곧게 뻗은 길을 따라 진신사리가 이운되고 그 뒤를 따라 스님들과 내빈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내빈들은 헌화로 부처님의 사리를 공양했으며 불교TV염불공양팀이 육법공양으로 화려하게 장엄하며 법회 시작을 알렸다.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고불문 △법주스님 등단 △개회선언 △내빈소개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봉행사 △대회사 △100만 결집 불사 약정서 교환 △치사 △봉축사 △대통령 메시지 △축사 △종정 진제 스님 영상 메시지 △법어 △결의문 낭독 △자비의 쌀 전달 △축가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불교문화축제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담은 금어연이 지나가자 대중들의 환희심이 고취됐다.

법회 후 화합한마당으로 모모랜드, 더보이즈, 드론공연, 송가인의 무대가 이어졌고 진신사리 친견은 밤 12시까지 진행됐다. 시민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며 "친견의 기쁨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동이었다"고 기뻐했다.

김소라(56) 불자는 "오전 9시부터 가족들과 함께 와 있었다"며 "늦은 시간이지만 부처님을 뵙는 심정으로 이 시간까지 기다려 부처님 사리를 친견하고 방장 지유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이런 좋은 법회를 열어준 주최 측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회에서 방장 지유 스님이 법문을 할 때마다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유 스님은 불교의 참된 힘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살생에 있음을 강조했고 불교의 저력은 화합에 있음을 재차 설명했다.

지유 스님은 "생명에 귀천이 없고 모두가 소중하다는 이 가르침이 불교 핵심이며 실천할 바이다. 또한 팔만대장경을 만들며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수호한 불자들이었다. 지금도 불자들은 하나가 되면 무엇보다 뛰어난 저력이 있다. 화합하고 다른 종교도 포용하며 참된 불자의 자세로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대축제는 부산 불자들의 불심을 하나로 결집하고 한국 불교의 위대한 가치를 계승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며 "오늘 축제에서 밝힌 작은 불씨가 확산돼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 세계의 더욱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또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원행 스님은 백만원력결집불사를 강조하며 "불국토를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실천운동이며 보시바라밀을 시작으로 부처님 법을 바로 세우는 자리이타 보살행에 다 함께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불교문화대축제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경선 스님은 "이번 불교대축제를 통해 불자에게는 불교라는 공통의 믿음을 상기시키고 비불자에게는 문화로서 불교를 새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축제는 어떤 경계도 없으며 자비로운 부처님 마음뿐이다. 화합만이 가득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회신도회장은 "물줄기가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모든 분들의 정성과 원력이 모여 한국불교의 기틀이 될 것이다. 불교 화합의 힘은 이 시대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응답이 되어 불교 가치로 행복을 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 명예원로의원 명선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진광 정사, 상임부회장 자관 스님, 사무총장 정산 스님을 비롯해 각 교구본사 및 종단에서 천여 명의 스님들이 참석했다. 재가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김세연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등 10만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11대 포교사단장에 방창덕 現단장 선출

포교사 자긍심 제고, 위상 강화 제1공약으로 내걸어

제11대 포교사단장에 방창덕 現포교사단장<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10월 22일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제7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제11대 포교사단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날 선거에는 선거권을 지닌 35명의 운영위원 중 33명이 참여했으며 방창덕 단장은 19표를 획득 선출됐다. 선거에 함께 출마한 신호승 인천경기지역단장은 14표를 얻었다.

방창덕 단장은 출마의 변에서 무엇보다 포교사들의 위상 강화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방 단장은 "7개월여 동안 포교사단장 소임 경험 바탕으로 그동안 돌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고 개선해 포교사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며 "신바람 나는 포교사 활동으로 생동감 넘치는 포교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 2020년 진행 예정인 포교사단 창립 20주년 기념 팔재계 법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며, 일선 포교현장에서의 포교사들의 활동을 다큐로 제작해 홍보하고, 포교사들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에 운영위원 소통방과 포교사 토론방 개설, 포교사단 단보 발행, 포상제도의 대폭 확대 등을 들었다.

방 단장은 "포교사들의 자긍심 고취가 중요하다. 사실 지난 7개월 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게 된다. 참회하는 시간으로 헌신으로 포교사단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방창덕 포교사단장은 포현재 68세로 포교사 16기, 전문포교사 9기 출신으로 대구 한국불교대학 총동문신도회 수석부회장과 포교사회 회장, 포교사단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구 염불포교 홍련팀장, 남서부 총괄팀장, 대구지역단 9대 수석부단장 등을 지냈다.

노덕현 기자

불교 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⑤

불교 알리는데 청년불자 '일심동체'

청년불자 반야팀

'청년불자 반야'. 다소 생소한 이름이 불교계 안팎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청년불자들의 일상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콘텐츠인 '청년불자 반야'는 불자청년들이 모여 진행하는 불교 영상콘텐츠다. 조계종 불교크리에이터 1기에 위촉된 청년불자 반야팀은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앞두고 있다. 1인 미디어 시대지만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이 팀으로 활동하는 추세에 맞게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배분해 불교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 10여명의 팀원이 있지만 임원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이들은 6명이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불교 콘텐츠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에 의기투합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반야 팀들은 이미 2015년부터 반야율동단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반야에서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가영 씨, 김경순 씨, 정승은 씨 등은 조계사서 인연을 키워왔다. 반야율동단이란 청년회 율동포교에서 인연을 맺고 더욱 활발한 뉴미디어 포교를 진행하기 위해 반야팀을 결성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경순 · 김가영 · 김근아 씨.

김경순 씨는 "사실 불교를 좋아하는 무교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불교 청년회에 관심있는 친구와 함께 청년회에 입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고 청년회서 남편까지 만난 정승은 씨, 모태불자이긴 하나 초파일 불자애서 점점 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진 김근아 씨 등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신심은 제각각이지만 불교를 알린다는 생각서는 일심동체다. 반야팀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블로그에 이어서 인스타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처님 말씀을 담은 불교 휴대폰 배경화면 등을 꾸준히 개발해 선보일 예정.

"함께 선정된 불교 크리에이터 1기와 함께 꾸준하고 다양한 콘텐츠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앞으로 2기, 3기가 계속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덕현 기자

사회갈등 치유 위한 명상페스티벌 열린다

명상으로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축제가 펼쳐진다.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학회장 인경)는 11월 10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에서 '제8회 힐링? 명상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며 제1부에서는 참가자 전체참여로 인경 스님의 호흡명상, 윤미숙 박사의 알머지 요가, 이영순 박사의 동작 명상 등이 진행된다. 제2부는 개인별 선택 프로그램으로 각 주제별로 20명씩 소그룹을 나눠서 진행되며 1주제 감정만나기서 김광호 박사의 오감명상, 허수미 강사의 이미지를 활용한 느낌명상이, 2주제 감정과 친해지기에서 용진 스님의 호흡명상, 장우혁 박사와 안경희 강사의 자비 명상이, 3주제 스트레스 분노표현하기서는 동진 스님과 최정효 강사의 미술과 함께하는 명상, 김창중 교수와 김영미 박사의 역지감지 명상 등이 진행된다. 4주제와 5주제에서도 다양한 명상강좌가 이어진다. 마지막 3부에서는 인경 스님과의 걷기명상으로 마무리 된다. (02)2236-5306

노덕현 기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부처님 심인법을 계승한 108조사의 수행공덕을 기리며 차 공양을 올리고 있다.


다례재에서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수행자들이 위법망구의 자세로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간화선수행 2박3일 용맹정진에 나선 불자들을 둘러보며 죽비로 직접 경책하는 진제 스님.

해운정사 108조사 수행공덕 찬탄

[현장] 제5회 선종본산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가섭존자, 아난존자, 상나화수 존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심인법을 계승한 108명의 조사 이름이 차례로 불렸다. 하얀 목련처럼 청정하게 한복을 입은 다인들이 차를 들고 나와 불심인조사전 앞에 차를 올렸다. 밤을 지새우며 화두를 들고 참구한 불자들이 회색 법복을 입고 다례대재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서 합장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화두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종정 진제 스님이 내리치는 죽비로 자신을 다 잡으며 하루 이틀 밤을 지새운 그들의 얼굴에는 맑은 미소가 번졌다.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와 사단법인 진제선세계화회는 10월 22일 제5회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를 해운정사 경내 불심인조사전에서 봉행했다.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는 부처님의 제79대 법손인 진제 스님이 부처님 이후 인도, 중국, 한국을 거치며 면면히 이어온 불조 108명의 조사에게 차 공양을 올려 공덕을 찬탄하는 자리다. 매년 이어온 다례대재는 지난해부터 지역민에게 세계 각국의 찻자리로 차향을 나누고,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축제한마당으로 회향되고 있다.

특히 다례대재 전, 2박3일 동안 사부대중이 모여 용맹정진하며 조사들의 심인법을 이어 영원한 행복을 얻겠다는 결의로 정진했다. 해운정사 선방에서 진행된 용맹정진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등 154명이 동참했으며, 정진 전 종정 진제 스님이 직접 화두를 내려주고 참구하는 법을 상세히 일러줘 사부대중은 정진의 열기를 더했다. 또 밤에는 지친 대중을 위해 종정 진제 스님이 직접 각 선방을 돌며 경책하고 화두를 놓치지 않기를 재차 강조했다.

용맹정진은 오직 입선과 예불로 진행되며 잠을 자지 않고 모든 대중이 화두만 붙잡는, 말 그대로 '철야용맹정진'이다. 용맹정진에 동참한 불자들은 "정진했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더욱 열심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연수 불자는 "종정스님께서는 어디에서나 화두를 참구하고 챙기라고 하셨는데 사실 삶속에서는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용맹정진을 하면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매순간 챙기려고 집중을 했지만 사실 이번에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스님과 도반들이 있어 힘내서 회향했고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장예람 불자는 "종정스님께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라고 참구하라셨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했는데 죽기 전에 꼭 알고 싶다. 계속해서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는 명종으로 시작을 알리자 진제 스님이 헌화하고 내빈들도 뒤를 이어 헌화하며 감사함을 전했다. 헌화에는 조계종 교

부처님 심인법 계승한 조사 기려
간화선으로 위법망구 정진 다짐
사부대중 2박3일간 용맹정진해
"무명서 중생 제도한 뜻 따르자"

육원장 진우 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수좌 인각 스님을 비롯한 수좌스님들과 해운정사 주지 능혜 스님, 동화사 국장스님들이 참여했으며 재가 내빈은 서병수 前부산시장,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이명원 해운대구의회 의장, 장세철 동화사 신도회장 등이 동참해 불조의 뜻을 되새겼다. 내빈들이 헌화 및 헌다하는 동안 경내 마당에는 2000여 명의 불자들이 함께 합장하고 마음을 모았다.

다례대재는 축사와 법어, 축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별히 진제 스님은 교육원장 진우 스님을 표창하며 그간 조계종 종무행정 안정을 위해 노력 봉사한 공로를 치하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세계인 심인법이 오직 우리나라에만 한 가닥 오롯이 남아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이 귀하고 귀한 부처님의 법이 영구히 전승되어야 할 것이라. 이에 모든 수행자들은 출격장부(出格丈夫)의 기상으로 위법망구(爲法忘軀)하여 불철주야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축사에서 "간화선 수행을 통해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을 확신한다. 불철주야 정진하는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계승승하는 것"이라며 "사부대중은 심인법을 밝히고 전하여 무명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제도하신 부처님과 조사님을 기리고 마음 닦아 게으름 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前부산시장은 "이렇게 좋은 가을날 다례대재를 통해 불조의 뜻을 기리게 되어 기쁘다"며 "해운정사로 말미암아 부산은 물론 전 세계에 부처님의 법이 널리 펼쳐지길 바란다. 해운정사가 그 중심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 이어 시민들을 위한 다회 및 경로잔치도 열렸다. 다회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차 문화를 전하는 찻자리로 진행됐다. 한국 다회는 발효차와 녹차로 맑고 청정함을 전달했으며, 중국 다회에서는 보이차 등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했다. 일본은 전통차 다례법을 선보여 미학의 절정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에 동참한 지역시민들은 선사들의 가르침을 지역민에게 베풀어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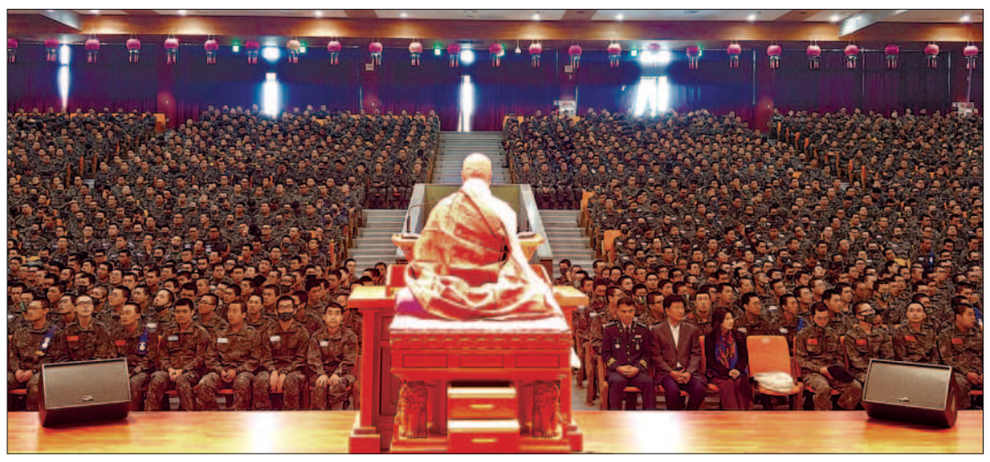
김나은(해운대구 · 45) 씨는 "어머님이 오고 싶다고 하셔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함께 왔는데 이렇게 종정스님의 법문도 듣고 좋은 찻자리에서 각국의 차를 마시는 문화를 경험해서 좋았다"며 "간화선수행이 사실 좀 낯설고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정소정(수영구 · 66) 씨는 "친구와 함께 왔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인지 몰랐다"며 "불조에 대한 뜻도 다시 알게 되고 다음 기회에 참선수행을 꼭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정사는 참선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해 참선불교대학을 운영 중이며 현재 3기를 모집 중이다. 참선불교대학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1교시는 강의, 2교시는 참선 참구로 이어진다. 장소는 해운정사 대불전이며 교과목은 참선입문교육, 불교기본교리, 반야심경, 금강경, 원각경, 선문촬요와 진제 스님의 저서 석인대소이다. 총 3년 과정이며 접수는 해운정사 종무소로 하면 된다. (051)746-2256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월 19일 논산 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3000여 장병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계사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이 대표 장병들에게 삼보륜 도장으로 연비를 해주는 모습.



계사 일면 스님이 수계 장병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는 모습.



호국연무사 주지 원상 스님이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 증서 3000장을 전달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호국연무사 군종병 김인수 병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명예 전당에 헌액했다.

“佛法 만난 귀한 시간… 이타심 가져라”

본지 · 생명나눔 공동기획

생명나눔은 자비입니다

⑦ 생명나눔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현장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큰법당을 가득 메운 3000여 명의 장병들이 합장을 하고 ‘참회진언’을 외웠다. 수계 장병들 사이로 수계사들이 장병들의 팔뚝에 삼보륜 도장으로 연비 의식을 행했다. 장병들은 수계 이전 오계를 어긴 과거를 참회하며 앞으로 오계를 어긋남 없이 지킬 것을 서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0월 19일 논산 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을 계사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호국연무사 주지 원상 스님, 육군부사관학교 법사 명법 스님, 이승훈 육군훈련소 신도회장(25연대장),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 박종우 홍보위원회장, 김남명 홍보위원회 수석부회장, 불암사 신도 등 100여 명이 내외빈으로 참석했다.

수계법회에는 훈련소 수계 장병 3000여 명이 동참했으며,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청성 · 청법가 · 청사 · 개도 및 법문 · 연비 · 귀의 · 기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계사 일면 스님은 개도(開導)와 법문을 통해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오계 수지의 중요성을 설하고 불자로 거듭난 수계 장병들을 축원했다.

일면 스님은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부처님이 되는 터전이 되는 것”이라며 “어두운 밤에 길을 가려면 등불이 있어야 하듯이 생사윤회를 벗어나 부처님이 되려면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회 참석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일면 스님, 3000여 장병에게 법문
“五戒, 인생에 필요한 규범” 강조
수계 장병들 ‘참회진언’ 봉독하며
삼보륜 도장 연비 받고 불자 거듭
기증 희망등록증서 3000장 전달도

“불자가 아니라도 오계는 인생을 살면서 꼭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강조한 스님은 “부처님의 오계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신조이며 행동 강령이다. 계를 수지함은 어두웠던 동굴에 전기불을 밝히는 것과 같이 억겁의 무명을 일시에 타파하는 것”이라고 설했다.

이어 “선행의 표준인 오계는 선은 점점 더 닦게 해 행복을 더욱 커지게 만든다. 장병들은 계를 수지함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다. 오늘의 귀중한 인연으로 장병들의 삶은 광명으로 충만할 것”이라며 “자기 몸을 희생해 비둘기를 구한 전생의 부처님처럼 이타심으로 살아가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수계법회 후에는 호국연무사 주지 원상 스님은 장기기증 희망등록 증서 3000장을 일면 스님에게 전달했다. 생명나눔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많은 노력을 해 준 호국연무사 군종병 김인수 병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명예 전당에 헌액했다.

또한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손재현 동국대 교육대학원 교수 무용단, 논산 율동팀으로 구성된 댄스팀 등이 화려한 공연을 선보여 장병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호국연무사는 생명나눔의 정기적 수계법회와 위문 문화공연 등이 훈련소 장병들의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지 원상 스님은 “생명나눔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사찰이나 단체는 많지 않다. 문화공연과 위문품들은 장병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생명나눔의 수계법회와 문화공연은 불교 입문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수계법회에 동참한 생명나눔 회원들의 호응도 높았다.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은 “법회 동참은 이번으로 3번째”라며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해 준 3000여 장병들의 자비행에 감사하다. 또한 일면 스님의 법문을 가까이서 듣게 되어 정말 좋았다. 앞으로도 이 같은 법회가 더욱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우 생명나눔 홍보위원회장은 “1975년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고 44년만에 다시 찾았다. 젊은 장병들의 힘찬 모습에 좋은 기운을 받아간다”면서 “생명나눔운동에 크게 마음을 내준 장병들이 자랑스럽다. 오늘의 수계 공덕으로 제대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기 바란다”고 기원했다. 논산= 신성민 기자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11월

‘생명나눔–행복나눔 태권도연합회’ 캠페인
· 날짜: 11월 3일(일) · 장소: 국기원

제10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
· 날짜: 11월 10일(일)
· 장소: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장기 및 조직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 날짜: 11월 14일(목)~11월 17(일) · 장소: SETEC

광주 · 전남지역본부 ‘무등산 걷기대회’
· 날짜: 11월 17일(일) · 장소: 광주 무등산

중부대 생명나눔 업무협약식
· 날짜: 11월 22일(금) · 장소: 중부대 고양캠퍼스

육군훈련소 군 장병 대상 ‘장기 및 조직기증 희망등록 교육’
· 날짜: 11월 24일(일) · 장소: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법당

고3 수험생 대상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교육
· 날짜: 11월 말 · 장소: 남양주 광동고 · 의정부 광동고

생명나눔실천본부 온라인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1–764580
국민은행	006–01–0770–038
우리은행	010–073780–13–101
기업은행	024–037428–01–016
우 체 국	010579–01–001564
농 협	053–17–001346
환자돕기(농협)	053–01–243778
신도등록(농협)	301–0044–4629–71

후원문의 : (02)734–8050



부산 팔관회, 호국불교 전통 재현

11월 9~10일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 일대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계를 받아 지키며 불교로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했던 팔관회가 불도 부산에서 전통방식으로 재현된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1월 9~10일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에서 팔관회를 개최한다. 팔관회는 551년(진흥왕 12)에 처음 행해진 호국불교 행사로, 고려시대 국가차원의 공식행사로 자리 잡았다. 팔관회는 8계를 엄격히 받아 지키며 나라의 번영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던 불교 전통의식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팔관회를 개최하며 전통불교 의식을 널리 알리고 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사를 이어왔다. 특히 팔관회를 문헌에 따라 고증, 재현해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팔관회는 11월 9일 오후 2시 호국기원법회와 백희가무로 문을 연다. 호국기원법회는 문헌에 따라 '팔관회 때 국왕이 왕사를 모시고 국태민안과 순국장병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법회를 개최했다'는 기록에 따라 재현한다. 호국기원법회에서는 사부대중이 호국기도문(인왕반야경 호국품)을 낭독하며, 법회에는 부산시장을 비롯해 각 기관 단체장이 함께해 의미를 더한다.

법회는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해 △삼귀의 △반야심경 △고불문 △호국기원기도 △

9일 호국기원법회 · 백희가무

10일엔 호국영령위령재 봉행

대중 위한 팔관재수계법회도

"오랜 역사 불교역할 재조명"

팔관회 봉행 개요 △대회사 △봉행사 △축사 △축가 △내빈소개 △사홍서원으로 마무리된다. 백희가무는 법회 직후 무대에서 바로 진행되며 호국관련 내용으로 마당극이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는 '호국영령위령재'가 재현된다. 위령재는 부산무형문화재 9호 부산영산재보존회가 주관하며, 순국장병의 넋을 기리고 왕생극락을 발원한 고려팔관회를 근거로 봉행할 예정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11월 9~10일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에서 팔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진행된 팔관회 행사 모습.

팔관재계수계법회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수계법회는 3화상 중심의 백고좌 법회로 경선 스님(부산불교연합회장), 세운 스님(수석부회장), 범산 스님(범어사 부주지)이 3화상으로 등단한다.

그 외 부산불교연합회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시민들과 불자들을 반긴다. 11월 1~10일 선문화교육센터 일대를 팔관회 호국기원등으로 꾸며 대중이 소원등을 달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아울러 9일과 10일 이틀간 팔관회 사진전이 열리며 전통체험 및 먹거리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번 행사는 새롭게 불사한 선문화교육센터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새로운 공간에서 팔관회의 중요성을 알리게 됐다"며 "전통불교문화 가운데 계를 통해 호국정신을 고취한 중요 행사를 재현한다. 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 역사 가운데 불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승병활동 요람, 개산 의미 되새겨

월주 스님 "국론분열 막아야"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10월 19일 금산사 개산 1420주년을 맞아 창건 이래 역대 조사의 중생구제 원력을 기리고, 고귀한 유지를 계승하는 모악산 문화제를 개최했다. 처영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개산 기념법회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주지 성우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동영 · 김광수 국회의원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구촌은 한 가족, 한 일터가 된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내편과 네 편으로 파당 짓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서고, 진영논리로 국론을 분열하는 불행한 역사적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금산사 개산 1420주년을 맞아 인종 · 지역 · 이념을 초월해 세계를 화합시키고 공존케 하는 원융무애한 대자대비의 보살행을 다시 한 번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조계종립 금산중고 씨름부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기념법회 후에는 모악산 숲속음악회가 열렸으며, 진표율사와 금산사를 배경으로 한 창작뮤지컬 '백제미륵의 꿈, 진표율사'가 처음 공개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이들에게 더 좋은 먹거리 제공"

나주세지中, 새 급식소 개관



불교종립학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마을음악회가 열렸다.

불교종립 벽상학원 나주세지중학교(이사장 원일)는 10월 18일 새로운 급식소 개관을 기념한 '느티나무 작은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전남의 작은 소도시에서 불교종립학교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 세지중학교의 새로운 급식소인 '미소관'의 개관식을 겸한 마을 주민 잔치였다.

행사에는 이사장 원일 스님을 비롯해 면장, 우체국장, 이장단협의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 등 세지면 주민 250여 명이 동참했다.

원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마을주민들과 동문회, 학교 행정실, 지역을 대표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으로 미소관이 개관했다. 우리 마을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앞으로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첫 식사를 한 이슬비(3학년) 학생은 "새 급식소를 오래 기다렸다. 예전에는 시설이 비좁아 많은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었는데, 이제야 넓고 멋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됐다. 곧 졸업이라서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음악회에는 학생 40여 명의 오케스트라가 첫 무대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세지중학교는 1인 1악기를 배울 수 있는 학교로, 학생들은 매주 2회 2시간씩 다양한 악기를 배운다. 이어 개관식과 교사들로 이루어진 앙상블 연주, 졸업생 이병섭 씨의 통기타 연주, 학생들의 장기자랑은 마을을 작은 축제의 장소로 만들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종립학교 금정中 삼귀의 · 오계 수계

제45회 삼귀의 · 오계 수계법회

종립학교 금정중학교 학생들이 부처님의 계를 지키고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금정중학교(교장 권장석)는 10월 23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제45회 삼귀의 · 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식에는 학생 100여 명이 동참했으며 이석언 교법사를 비롯한 교직원이 참석했다.

범어사 율감 효천 스님은 삼귀의와 오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계는 성불의 근본이 되며 어두운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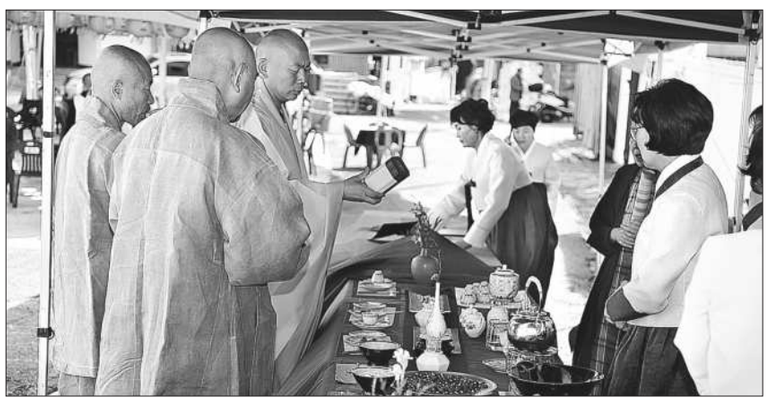
금정중학교는 1906년 범어사가 설립했으며, 1975년 10월 광덕 스님을 계사로 제1회 수계식을 거행했다. 당시 학생 235명과 교직원 9명이 오계를 수지했으며 이후 매년 10월과 11월에 수계식을 봉행하고 있다. 현재 금정중학교는 재학생 가운데 1학년은 85%, 2학년은 87%, 3학년은 91% 학생이 계를 받았으며 교직원은 전체가 수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경상도 사찰음식, 널리 알려지길"

울산 해남사, 전통음식 한마당

울산불교종단연합회 주최 · 주관


해남사는 '제8회 울산 전통음식 문화한마당'을 10월 21일 해남사 경내에서 개최했다.

울산 해남사에서 사찰음식을 주제로 불교문화를 한층 더 아름답게 엮어 보여주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해남사(주지 혜원)는 '제8회 울산 전통음식 문화한마당'을 10월 21일 해남사 경내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울산불교종단연합회가 주최 · 주관했으며, 울산시 후원을 받아 '경상도 지역 산사 승원의 음식'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대중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음식뿐 아니라 화려한 색깔을 뽐내는 전통산사 음식과 약선 요리가 전시됐으며, 개막식 직후 내빈들은 음식을 직접 맛보며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는 주지 혜원 스님을 비롯해 울산불교종단연합회 스님 및 신도 500여 명이 동참했다. 불자들은 화려한 음식 전시를 비롯해 체험 행사로 진행된 전통차 시음, 떡만들기, 화전 등 다채로운 음식 만들기 체험에도 참여했으며 호기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2016년 KBS '한국인의 밥상'에 출연해 산사 승원 음식을 알리고 '대한민국 불교예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명천 스님이 나서 특강을 진행해 박수를 받았다.

명천 스님은 강연에서 "사소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귀중함을 되새기며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사소한 음식이라도 그 음식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 귀중함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며 "또한 같은 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도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정성과 마음으로 요리했느냐에 따라 그 맛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해남사 주지 혜원 스님은 "이번 행사에서는 음식뿐 아니라 담는 용기인 그릇도 중요하게 조명하려 노력했다"며 "특히 경상도 지역 옻칠 문화에 대해 알리려 노력했다. 그릇과 음식의 조화를 살펴보며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사는 개산 108주년을 맞아 보광당에서 원불공양법회를 봉행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군산 상주사, 군산사랑 시민가요제

군산 상주사(주지 도연)는 10월 17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전주 참좋은우리절 주지 회일 스님,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김관영 국회의원,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등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2회 상주사 군산사랑 시민가요제'를 개최했다.

상주사 퓨전난타팀의 난타공연으로 막을 연 가요제는 군산불교연합합창단인 그린비 합창단의 공연, 희망풍선 날리기, 축사, 국악공연, 시낭송 등으로 진행됐다.

상주사 주지 도연 스님은 "군산시민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일제 통제 속에 한국불교 지키다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⑳ 선학원 중앙선원

요즘 한일관계가 좋지 않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배상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시작된 양국의 갈등이 무역, 안보, 그리고 불매운동까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상황까지 겹쳐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런 갈등의 원인은 한 세기 전 일제의 한국침략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36년간의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모든 분야에서 통제와 수탈이 행해졌다. 그런 식민지 정책에 한국불교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오히려 일제는 양국이 공동으로 신앙하던 종교인 것에 착안하여 한국에 진출하는데 일본불교를 이용하였다. 합방 이후에는 한국불교를 통제하여 식민지정책에 활용하였다.

1910년 8월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일제는 1911년 6월 한국불교를 통제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제령 7호로 사찰령을 반포하였다. 이후 7월 8일 전문 8조로 된 사찰령시행규칙이 제정되어 그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한국불교를 30본산으로 구분하였다. 각 본산은 사찰의 본말 관계, 승규, 법식, 그리고 기타의 필요한 사법을 정하여 총독의 인가를 얻어야 하였다. 그리고 30본산의 주지는 총독의 승인을 얻어서 취임하며 본말사법 규정에 의해 각 말사를 관할하였다.

1911년 11월부터 총독부는 각 본사의 제1세 주지를 차례로 인가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1912년부터 각 본사는 각기 사법을 제정하고 이를 신청하여 총독의 인가를 얻었다. 그 결과 전국의 사찰을 30본산과 그 말사로 등록되는 본말제도가 확립되었다. 본말사 주지의 임면권을 장악한 총독부와 지방장관은 사찰의 폐합 · 이전 · 재정의 처분 등 각가지 규제로 1,300여 개에 이르는 한국불교를 지배하게 되었다.

총독부는 이런 통제정책을 한국불교의 수준을 상승시키는 일로 선전하였다. 오랫동안 피폐했던 사찰들이 사법을 제정하고 재산보존 방법을 확립하는 등 그 면목을 일신하면서 한국불교의 존립과 아울러 보호에 완전을 기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수백 년 이래 억압되어온 한국불교의 승려는 이론 조치에 의해 불교를 신앙할 수 있는 근본이 세워졌으며, 불교와 유교 그리고 기독교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굴욕상태를 벗어나 다른 종교와 균등하게 포교의 임무를 다하며, 각자의 직책을 자각하도록 선전하였다.

이런 일제의 한국불교 지배는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한국불교 자체의 특색을 상실하고 인위적인 제약 속에서 독자적 발전의 기회를 상실한 점이다. 두 번째는 일본불교의 의례가 들어온 후 우리의 전통 의례가 변질되는 폐단이 심각하였다.

총독부가 사찰령 다음으로 제정한 법령은 1915년 8월 16일부터 시행된 총독부령 제83호의 포교규칙이다. 이 법에 의하면 한국에서 포교에 종사하며 또는 포교에 사용하는 교회당 강의소 설교소의 종류를 설립한 자는 포교규칙 시행일부터 삼 개월 이내에 각각 규정을 제출하여야 했다. 그리고 교회당 기타 포교용 건물 등에 있어서는 포교규칙 제9조에 의하여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이런 통제에 의해 한국의 모든 종교는 포교용 건물 등에 있어서 포교종사자가 있는 본인 거주지와 포교소가 있는 소재지의 관할 부 · 군 · 도 · 청을 경유하여 새로 허가를 얻어야 했다. 이런 포교규칙에 의해 일제는 불교를 포함한 유력 종교의 통제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설법 · 강연 · 안거수행 등
전통방식으로 종풍 유지
범행단 통해 실천도 담보



1970년대 찍은 선학원 중앙선원 건물 모습. 현재는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포교규칙은 1920년 4월 7일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수속의 간편함과 서류 제출의 간소함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본칙에 걸려있는 벌금형을 삭제하여 포교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 등의 안녕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설립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이의 사용에 대한 정지와 금지의 규정을 첨가하여 통제의 방향은 변함없었다.

의식 있는 수행자의 선학원 창립

서울을 둘러보는 관광객에게 강북의 북촌은 매력적이다. 강남의 화려한 분위기와 달리 전통가옥과 어린 시절 살아봄직한 골목길이 주는 감성이 남다르다.

선학원은 그 북촌 가운데 있다. 중앙선원이란 현판이 붙어 있어 선을 수행하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원래 1910년 설립된 원종이 일본 조동종과 어이없는 맹약을 체결하자 이에 반대하여 생긴 임제종의 서울 포교당이었다. 1912년 임제종 사무소가 범어사로 옮기면서 동래, 초량, 대구, 그리고 서울 네 곳에 임제종 포교당을 세웠다. 한국불교의 독자적 활동을 허용하지 않은 총독부는 1912년 6월 원종과 임제종의 해체명령을 내렸다. 그 후 범어사 서울 포교당으로 사용되다가 1921년 선학원이 설립되면서 한국불교 전통을 지키는 중심지가 되었다.

일제의 통제로 한국불교의 종지와 종풍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자연히 각 본산에 있던 선원이 폐지되면서 선풍이 쇠락해졌다. 1913년 30본산 연합회에서 조사한 각 본말사의 선원은 고작 72개로 이 숫자는 일제 말기까지 별다른 증가 없이 계속되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의식 있는 불교인들이 1921년 11월 불조의 정맥을 계승한다는 취지아래 선종의 중앙기관을 설립하였다. 처음부터 일제의 불교정책에 반대하여 이름도 ○○사 대신 선학원이라는 위장 칭호를 썼다.

선학원 설립에 주도적 역할은 한 사람은 범어사 포교당 포교사인 남천과 석왕사 포교당 포교사인 도봉 그리고 만공, 용성, 석두 등이었다. 요즘 옥중에 있던 한용운의 참여가 있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어 그의 참여도 알 수 있다. 대부분 민족적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어서 활동 역시 그렇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선학원을 개원하면서 초기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살계 수계라고 하는 전통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핵심적 인물과 일부 재력 있는 신도들의 많은 희사가 있었다. 운영이 활성화 되면서 선원이 있는 지방 사찰의 재정 헌납도 이어졌다. 1924년 3월 15일 상오 10시 경성부 안국동 선학원에서 개최된 선우공제회 제3회 정기총회 때 보고된 헌납 부동산을 보면 1922년 2월 1일부터 1923년 3월 14일까지 불영사, 해인사, 표훈사 등이 부동산을 헌납하였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전국에서 선원을 운영하는 주요 사찰들은 많은 재원을 출연한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수행자들의 개별적인 재산출연도 이어졌다.

설립 직후 선학원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립적 경제의식을 촉구하였다. 1922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회의를 거쳐 선풍의 진작과 전국 수좌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성월, 남전, 학명 스님 등 79인의 수좌들이 발기하여 선우공제회를 결성하였다. 당시 사찰의 풍토는 수좌들의 선 수행을 지속할 만큼 여건이 좋지 않아 이를 타개해 보려는 의도였다. 이후 선우공제회에 가입한 수행자가 3백 65명에 이르렀다.

선우공제회는 서무부, 재무부, 수도부 3부를 두고 적음, 석두, 만공 3인을 이사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공제회의 사무에서 회원들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사찰에서 선출된 20명의 평의원 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선우공제회는 각 사찰에 공문을 발송하여 선원을 운영하기를 권고하기도 했고, 선우공제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선려들에 대하여 회원으로 등록하고 회원증을 발부했다. 그리고 재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하였다. 당시 선우공제회가 정한 유지방침을 보면 선우의 의연금 및 희사금으로 충당하고, 각 지부 선량 가운데 2할과 매년 예산 가운데 잉여금을 저축하여 공제회의 기본재산으로 설정하여 각 선원을 진흥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제회 재산의 수지 총액 예산, 결산과 같이 재정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두 평의원의 1/2 이상 의결로 집행한 것도 선학원을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합리적 방안이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학원과 선우공제회는 운영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1924년 4월 사무소 및 기타 경비의 유지가 어렵게 되자 선우공제회는 서울에서 직지사로 이전하였다. 선학원 또한 1926년 5월 범어사에서 인수하여 범어사 포교당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선학원 재건과 한국불교 정립운동

활동을 멈춘 선학원이 다시 재건된 것은 1931년 1월이었다. 앞장 선 수행자가 김적음이었다. 만공은 한의학에 밝아 흔한 약재로 대중을 치료하면서 이름을 날리자 법호를 초부로 지어주었다. 그 역시 일제의 지배에서 자꾸만 변질되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의지가 컸다.

재건된 선학원은 초기부터 대두된 재정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단법인의 설립을 도모하였다. 법인은 1934년부터 준비하여 그 해 12월 5일 재단법인 '조선불교선리참구원' 으로 인가받았다.

재단법인으로 개편된 이후 희사가 많아져 선학원의 재정상태가 좋아졌다. 1935년 선원 제4호에 실려 있는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 설립 당시 기부 재산자 일람표' 에 의하면 만공을 비롯하여 선학원 핵심인물 16인이 전답과 건물을 기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기부된 가격이 모두 82,970원 45전에 이른다.

그 후 재정은 14만 원을 상회하도록 증가하였으며, 법인에서 경영하는 선원도 5개소에 이르자 많은 신도들과 본산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1본산에서도 찬조금을 보낼 의향이 있음을 밝혔고, 토지와 현금을 가진 신도와 승려들은 생전에 자신이 사용하다가 열반 후 수좌들의 공부를 위한 제위답으로 해달라는 찬조가 잇따랐다.

재건된 선학원은 1935년 3월 23일 수행자의 단합을 위해 선학원 대방에서 전선수좌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중앙선원 설치 건의안을 교무원에 제출하였으며, 선리참구원의 확장과 선종종규의 제정, 기타 각종 규약을 제정하려 하였다. 그리고 만공과 혜월 그리고 한암을 종정으로 선출하여 수행풍토를 강화할 수 있었다.

행정적으로 체제정비에 성공한 선학원은 당시 불교계 통일기관이었던 재단법인 중앙교무원 종회에서 수좌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찰의 할애와 모범적 총림 건설을 위해 지리산, 가야산, 오대산, 금강산, 묘향산 등 5대 산을 요구하였다.

재기한 이후 지속적인 한국불교 발전을 도모한 선학원은 일요일마다 개최된 정기법회와 불교 기념일에 개설된 법회에 한용운, 이탄옹, 백용성 등 고승들이 일반대중을 상대로 설법과 강연을 하는 등 불교대중화에도 힘을 기우렸다.

이후 한국불교의 전통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1년 3월 4일부터 10일간 고승수양법회를 개최하였다. 이 법회에는 만공을 비롯하여 34명의 청정비구들이 집결하여 선학과 계율 그리고 범망경과 유교경 그리고 조계 종지에 대해 설법하였다.

고승수양법회를 무사히 끝낸 선학원은 그런 여세를 몰아 불교계에 지계와 수행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행단을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고승법회의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참여자는 습정균혜의 비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단의 실천방향이 선학과 계율의 종지를 선향에 있었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예순 부부의 동사섭 법문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⑳ 앞치마를 두른 남편이 멋지게 보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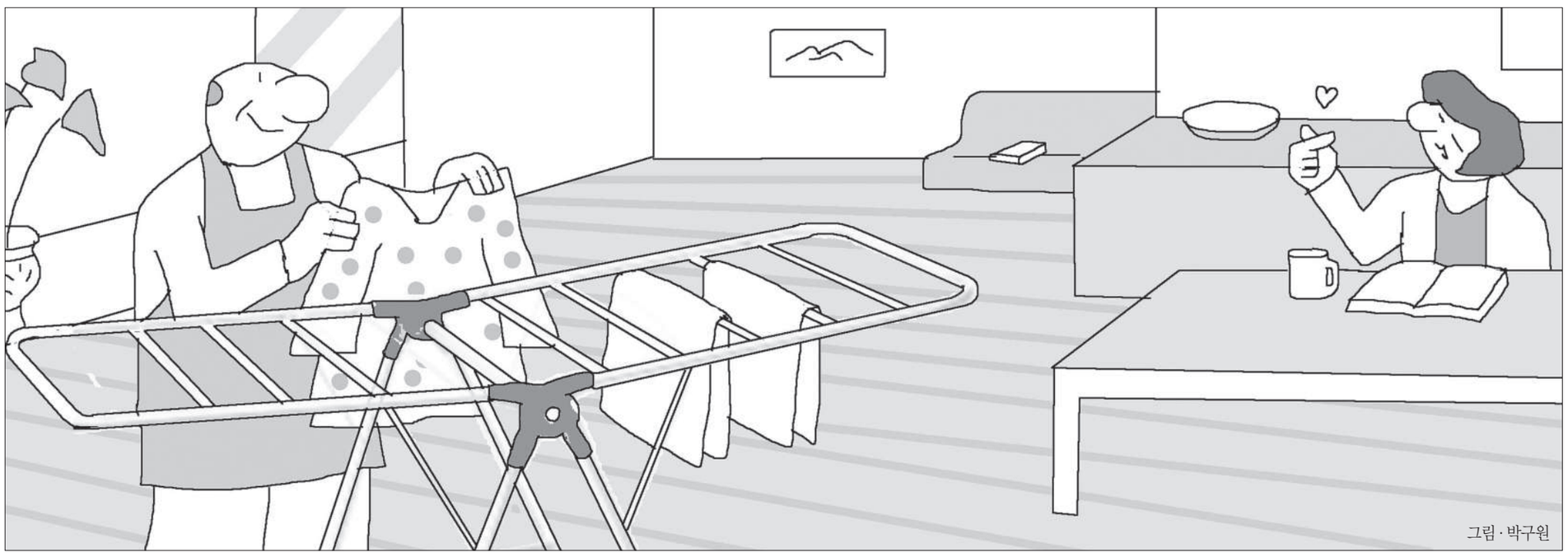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재래시장 쪽으로 산책 나간다는 삼식씨에게 지폐 한 장을 쥐어주며,
- 포항초 있음 한 단 하고 숙주 한 봉 사 오슈. 남는 건 팁이오.
아, 그 시장의 미나리 좋더라. 그것도 보이면 한 봉지 (사려면 돈 모자라겠네, 하려는데)
- 야!! 이걸로 그거 다 사라고?
- (갑작 얄미워져서) 모자라면 자기 돈 보태시든가.
- 용돈이라고 쥐꼬리 만큼인데, 걸핏하면 장보러 가는 심부름 시키면서 삥까지 뜯는구먼. 빵 셔틀 시키는 일진이냐?
- 그거 다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거요. 세 끼 챙겨주는 일진 봤소?

하루 세끼 반찬 챙기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게다가 싱겁다 짜다, 건강식이라고 애써서 차려 놓으면 고기 한 점 없는 풀밭이라느니, 식탁에 앉으면 투정은 다 하면서 시장 보고 오라면 툴툴대는 남자에게 좋은 소리가 안 나온다. 아이들 다 독립하고도 끼니 장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자는 일진 노릇이라도 해야 오랜 세월의 억울함이 풀리는 듯하다. 끼니 독립 못하는 삼식이는 영원한 꼬붕이어야지 그럼.

SNS에 이 글을 포스팅했을 때 많이 달린 댓글이, 삼식이가 되면 이런 대접이냐며 불쌍하다는 거였다. 농담 같은 이 말은, 은퇴해서 집에 있는 남자를 돈 벌지 않는 백수 취급하며 구박하지 말라는 질책이다.

물론 그 농담 같은 진담에 귀 기울일 여자는 아니다. 지금까지 남자에게 해다 바친 밥상이 대충 헤아려도 1만 여 끼다.

세상에! 누군가가 자신의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만 끼가 넘는 식사를 준비했다니, 나 같으면 엎드려 절을 하는 자세로 그 밥상을 받을 것이라고 여자는 생각한다. 찬거리 준비 정도를 돕는 건 당연하지.

세 끼니를 챙기는 수고로움

새삼 이제 와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 분담에 시비를 걸거나, 세상이 달라졌으니 부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진지한 논쟁을 펼치고 싶지는 않다.

두 남녀가 부부라는 인연으로 만나 어떤 세월을 살았건 나이 예순을 넘겨 밥벌이의 전쟁을 끝내고 여유 있는 생활로 들어섰으니 자신의 끼니 정도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여자도 맞벌이를 했건 전업주부를 했건 나름의 역할을 했을 테니 말이다.

아내들(남편과 아내라는 호칭 자체가 성역할의 고정이라는 편견이 있어 쓰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구분이 끝나지 않았으니 굳이 피하지 않는다)에게 물으면 남편의 은퇴 후에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밥 세끼를 챙기는 일이라고 한다. 세 끼를 집에서 해결하는 남편을 뜻하는 삼식씨라는 속칭이 아내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자녀는 독립해서 나가 살거나, 제각기 바빠서 함께 식탁에 앉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남편은 이제 죽을 때까지 밥 차려 달라며 붙어 있다 생각하면 아내는 한숨부터 나온다.

훌륭한 밥상을 차릴 정도로 능숙한 요리를 바라는 아내는 없다.

하루에 한 끼라도 알아서 챙겨먹고 가끔은 서툰 솜씨라도 아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와인이라도 한 잔 하자는 그 정도의 성의와 마음을 보고 싶다. 모든 것은 태도, 유식한 말로 애티튜드에 있다. 요리법은 인터넷에 널렸다. 백아무개의 레시피를 비롯해 요리 초보인 남편이 따라하기 좋은 스피드 메뉴가 가득하다.

60대의 선택, 요섹남

요섹남이라고 아실 거다. 요리 잘하는 섹시한 남자.

텔레비전에서 달인의 칼질을 하고 소금을 흩뿌려가며 스테이크를 굽는 멋진 셰프만 섹시한 게 아니다. 부엌을 어지럽히고 손을 데여가며 요리에 몰두하는 60대의 남편이야말로 섹시한 남자다.

고향 선배가 '딸 내외랑 손주가 오는 주말이 난 제일 좋아' 라고 해서 귀여운 손주 자랑인가 했더니 밥 타령이었다. "애들이 오면 식탁의 반찬이 달라지거든!"

아직도 챙겨주는 밥이 따듯하고 포근한 부부사랑의 징표라고 생각하는 남편의 밥 타령에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 친구는 매일 밥 타령하는 남편이 꼴 보기 싫을 때를 말하면서 극단의 예를 들어주었다.

함께 늙어가는 한가로운 처지
짐을 지면 같이 짐지는 자세로
옛 역할은 잊고 도반으로 가야

"주말에도 바빠서 밥 한 끼 같이 먹을 시간이 없는 아들이 모처럼 집에 있는 날, 마음먹고 갈비찜을 했더니 남편이 먼저 달려와 우적우적 먹어대는데 어찌나 꼴 보기 싫든지. 입에서 빼내서 아들 주고 싶더라니까."

함께 있던 친구들은 심하다고 하면서도 한편 공감이 가는지 유쾌하게 웃어댔다.

60대의 미란씨는 남편에게 향하는 애증의 갈등을 이슈로 들고 온 고객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이 미웠다가 고왔다가 해요. 그 마음이 어찌나 수시로 변하는지 내가 정서 상태가 이상한가 싶을 정도예요."

혼자 있을 때 차분하게 생각하면 40년 가깝도록 집안 경제를 책임지고 가장 노릇을 해 온 남편이 고맙고 애틋한데 옆에서 잔소리를 하거나 미운 짓을 하면 그 마음이 한순간에 돌변한다고 했다.

"종일 함께 집에 있는 날은 더해요. 신문을 보면서 하는 한마디도 듣기 싫고 화장실에서 내는 소음도 유난히 싫어서 문 닫고 하라고 쏘아대곤 하죠."

사소한 잔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작은 말다툼이 이어지는 시간을 보내다가 끼니를 챙겨주고 잠자리에 누우면 그렇게밖에 못한 자신이 한심하고 남편에게 공연히 미안한 그런 마음이 되풀이된다고 하소연을 했다.

코칭대화를 계속 하면서 미란씨는, 자신이 앞으로도 일상의 치다꺼리를 해줘야 하는 남편이라는 존재를 남은 인생의 큰 짐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물론 모든 아내가 그렇지는 않지만 흔히 듣게 되는 이런 이야기는 이제 사회인으로서 세월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마음 한 편을 솔직하게 보여준다.

남편은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아내를 여전히 믿고 의지하는데 아내는 이제 그 노릇에 질렸거나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이 거리감.

"평생 식탁을 차리고 가족의 돌봄 역할을 하는 일이 얼마나 지루하고 피로한지 남자는 잘 모를 겁니다. 집안일이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렵냐고 하겠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성가시고 즐겁지 않은 거지요. 가사노동이라는 게 해놓으면 특별히 본치가 안 나지만 대충 하면 바로 모자라는 티가 나잖아요? 지루하고 무의미해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누군가 해치워야 하는 일이죠."

수십 년 해온 이런 일을 자녀가 떠나고 몸과 마음은 쇠락해져 가는데 여전히 혼자서 떠맡아야 한다는 사실이 숨 막히고 그 노릇을 남편이 강요한다고 생각하면 미워진다고 미란씨는 말했다.

함께 일하는 동사섭으로 마음을 움직여라

사섭법(四攝法)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네 가지 방법이다. 중생을 불법(佛法)에 끌어들이는 보살의 기본 행위인 사섭은 상대가 원하는 바를 알아 행함으로써 먼저 다가가는 일이다.

보시섭(布施攝)은 필요한 재물로 욕구를 충족시켜 마음을 열고, 애어섭(愛語攝)은 사랑스러운 말로 마음을 나눈다. 이행섭(移行攝)으로 실제의 이익을 가져다주어 마음을 다루고, 동사섭(同事攝)으로는 어떤 일을 함께 하여 마음을 움직인다.

동사섭은 상대가 처한 환경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불도에 이르도록 돕는다. 이는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느끼는 가장 적극적인 공감의 방법으로 사섭법 중에서도 실천이 가장 힘들다고 여겨진다.

노년으로 가는 부부에게 동사섭만큼 사랑스러운 법문이 있을까.

한사람은 바삐 일을 마쳐야 하는데 동행하는 한 사람이 풀밭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며 잔소리를 한다면 절대 마음을 얻지 못하며, 두 사람 사이에는 평온함이란 없다. 여자가 같이 먹으려고 바삐 끼니를 챙기는데 남자가 텔레비전 앞에서 '커피 한 잔 타 주시오' 라고 하면 눈 흘기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으랴.

남편이 경제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던 시절을 지나 함께 늙어가는 한가로운 처지가 되면 기꺼이 동사섭의 자세로 내려와야 한다. 꼴을 베면 같이 꼴을 베고 짐을 지면 같이 짐을 지는 자세가 동사섭이요 동고동락이다.

아이들이 오면 별미를 하고 늘 보는 남편은 찬밥이나 데워준다고 불평 말라 삼식씨여! 그대도 어쩌다 손님처럼 식탁에 오면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 아니, 그 색다른 식탁을 그대가 차려볼 생각은 없는지? 집에 있으면 구박이나 당한다며 '친구와 당구치고 자장면 사먹으면 되지' 하고 나가지만 말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부인님을 삼식양으로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외벌이를 했건 맞벌이를 했던 이제 옛 역할은 잊자. 남은 인생을 든든한 도반으로 걸어가는 파트너가 되기로 하자. 여자가 식탁을 차리면 남자는 설거지를 하고, 여자가 청소를 하면 남자는 빨래를 걷어서 정리하는 풍경. 여자가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밥 줘!' 보다 '밥은 먹었어? 뭐 차려줄까' 하며 부엌으로 나가는 풍경. 예순의 부부가 평화롭게 늙어가는 아름다운 광경이다.

심하다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남자 분은 그 이유를 써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란다.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남자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전해드리겠다.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무상 인식하면 '시간연기' 이해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⑳ 연기의 시간적 관점



그림 · 강병호

시간과 공간은 원래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다. 태초에 나타난 것이 '공간'이며 나타난 것의 움직임이 '시간'이 되는 것이다. 시공간이 하나라는 것을 증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아인슈타인이 16살 때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물체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라는 화두에서 출발된다.

'촉'은 산스크리트어로 말하면 스파사 즉, 충돌이다. 부딪치는 것이다. 6근 · 6경 · 6식이 결합하여 부딪쳐 촉이 이루어진다. A에서 B로 변했을 때 변하기 전 A가 나 자신인가? 변하고 난 후의 B가 나인가? 충돌이 일어나기 전의 나를 나로 인식할 것인지 충돌이 일어난 후 나를 나로 인식할 것인지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갈등하는 기본의 바탕은 충돌 때문이다. 근본적인 의식의 저변에는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기 전을 나라고 했는데, 이 충돌이 일어난 후의 나를 나라고 할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촉에서 변화를 바탕으로 갈등이 생긴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충돌하기 전과 충돌하고 난 후의 가장 극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바로 충돌 전의 나의 가장 극한 상황은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충돌 후의 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상황이다. 죽음 전의 상황과 죽음 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많은 상황 중에 가장 극한 상황은 충돌 전후이다. 충돌 전에는 살아있었으며 충돌 후에는 죽어버렸다. 이 문제에서 분명히 충돌 전의 나를 인식하면 충돌이 일어나기 전의 어제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충돌이 일어난 후 오늘의 상황도 생각해 보자. 충돌 전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해 봤을 때 충돌 전의 어제는 오늘 생각해 보면 어제의 일인 것이다. 어제 일어난 일은 대부분 기억한다. 나는 어제가 있었던 것을 인식한다. 충돌 전후를 생각해 보니 충돌 전이 어제였다면 충돌 후는 오늘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을 생각해보니 어제는 있었다고 인식한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흘러가서 바로 죽음 직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죽음 직전은 살아있을 때의 어제이고 죽고 난 다음이 오늘인 것이다.

촉에 대한 이해

충돌 후의 나는 죽었고 충돌 전의 나는 살아있다. 그러면 충돌 후 내가 충돌 전을 인식한다면 분명히 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분명히 어제를 인식했었는데 만약 마지막 충돌의 극한 상황인 죽음을 사이에 두고 생각해보면 충돌 전의 어제가 있었다고 인식한다면 전생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 삶을 안다면 그것은 전생이다. 충돌 전의 어마어마한 극한 상황에 의해서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급격한 충돌 상황에 의해서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는 기억하고 10년 전도 기억한다. 이 몸뚱이를 받아서 살았던 오래 전은 어느 정도 기억한다. 충돌의 극한 상황이었던 죽음에서 생각해 보자. 죽음을 경계로 해서 그 전에 있었던 것을 만약 기억한다면 전생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충돌의 문제는 전생 유무까지 확장된다.

간혹 전생을 아는 사람이 있다. 스티븐슨 박사는 1975년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생을 기억하는 1300명의 사례를 모았다. 우리는 본래 전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또 전생을 기억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스티븐슨 박사는 1300명의 사례를 모아서 책으로 출간했다. 내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생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마일이라는 아이가 있다. 그는 태어난 마을에서 3~4살이 될 때까지 마을을 떠나 본적이 없는데 자꾸만 자기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면서 자신의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서 집을 떠나 본적이 없는데도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까지 말하면서 우겼다. 아이의 말을 듣고 알아보니 약 50리 떨어져 있는 곳에 실제적인 지명의 마을이 존재하였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그 마을로 갔다. 마을에 있는 어떤 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이라고 하였다.

기록에 보면 이스마일은 전생의 빚을 이생에서 받았다고 한다. 전생에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을 바꾸기 전에 그 마을에 사는 A씨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A씨는 이스마일이 죽어버리자 돈을 갚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찾아와서 어느 때 자기한테서 돈을 빌려

>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무상' 무상의 기본 속성은 변화이다"**

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왜 돈을 갚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래서 전생에 빌려준 돈을 이스마일은 받아 낸 것이다.

린포체 신앙에 대해

티베트에서는 유명한 린포체 신앙이 있다. 뛰어난 수행승들은 자기가 죽었을 때 다시 환생할 것을 예언한다. 이것이 림포체 신앙이다. 현재 티베트의 법왕인 달라이라마도 린포체 중에 한사람이다. 달라이라마 같은 린포체가 10명 정도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달라이라마가 16세이니까 죽고 죽기를 16번해 환생한 것이 된다. 1984년에 예시 린포체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반하였는데 이듬해 스페인에서 오셀히타라는 아이로 환생을 하였다. 아이는 2살이 되던 해에 다람살라로 데려가서 키워지는데 이때 달라이라마는 "이 아이가 예시 린포체의 환생이라는 것은 %% 정도 분명하다"라고 하였다. 이 아이가 1985년에 태어났으니 현재 35살로 린포체로 티베트에서 교육받으면서 살고 있다.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자신만 아는 어떤 비밀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경전을 혼자만 아는 곳에 숨겨 놓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숨겨 두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즉 환생하여 그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다. 전생에 자신이 숨겨둔 것을 다음 생에 태어나서 찾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린포체가 된다.

시간 연기에 대해

광주 비엔날레에서 북한의 천재화가인 네 살 된 오은별의 그림을 전시한 적이 있었다. 세계그림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도대체 전생이 없다면 그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어린아이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겠는가?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서 전생이 없는 것일까? 분명히 전생이 있는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바로 6촉의 가장 극한 상황인 죽음 즉, 죽음과 삶의 경계가 6촉의 극한 상황이다.

우리는 매일 매일 촉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억한다. 이것이 강하게 부딪쳐서 일어나는 세계는 바로 어제 일어난 것과 10년 전의 것은 기억하지만 극한 상황인 죽음. 다시 태어나기 전의 상황은 기억하지 못한다. 촉의 극한상황에서 나의 모든 의식이 깨어져버린다. 그래서 기억을 못한다. 식이 맑은 사람은 전생을 기억할 수도 있다. 식이 맑은 사람은 그 전생의 업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6촉은 기본적으로 부딪침이다. 감정의 부딪침, 육신의 부딪침, 모든 것의 부딪침에 의해서 촉이 일어나고 연이어 일어나는 것이 육수이다. 부딪친 다음에 느낌이 온다. 그 느낌은 우리에게 상을 만들어 애욕으로 저장된다. 항상 촉은 느낌을 동반하는 것이다. 이 느낌에 의해서 촉에 대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이다. 어떤 촉이든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좋은 촉은 지속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나쁜 촉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애'로 '육애'이다. 육애는 갈애로 느낌에 의해서 항상 좋은 감정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의 몸뚱이를, 의식의 덩어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애욕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된다. 애욕이 어떻게 생길까? 바로 육근으로 부터 시작한 갈애는 다른 것이 아니라 3개의 속성인 탐진치인 것이다.

그런데 시간연기는 연하여 일어난다고 했다. 앞에 것에 연하여 뒤에 것이 일어난다. 역으로 앞에 것이 없으면 연하여 뒤에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항상 앞에 것에 연하여 뒤에 것이 따라서 일어난다. 육촉에 연하여 육수가 생긴다. 육수가 일어나면 육수에 연하여 육애가 일어난다. 느낌에 의해서 육애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느낌에는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고 좋은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이것에 의해서 갈애가 생긴기며 애욕이 생긴다. 애욕의 덩어리가 '진'이고 '치'이며 '탐'이다. 물질적인 욕망을 포함하여 우리로 하여금 탐욕을 만들어낸다. 감정적인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진애 즉 화내는 마음인 진심을 만들어 낸다. 두 개를 합하여 모르는 것이 치심을 만들어 낸다.

앞에 것에 연하여 일어나는 시간연기는 육근, 육경, 육식, 육촉, 육수, 육애까지다. 6경의 기본적인 속성인 무상이 육수에 의해서 변했는데 이 변화에서 6식이 6촉으로 변화한다. 이 충돌의 끝인 갈등의 가장 복잡한 형태에서다 깨트려져 앞의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몸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을 때 대부분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극한 상황의 충돌 때문이다. 거꾸로 전생을 기억하려면 육촉에서 식이 맑으면 극한 상황인 태어나기 전 모태속의 나와 그것을 넘어선 것까지 기억해 나가면 바로 전생이 기억된다. 혹 최면을 걸어서 전생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무상, 시간의 속성은 일단 끊임없이 흘러간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없다. 끊임없이 변해간다. 이것이 바로 무상이다. 무상의 기본적인 속성은 변화이다. 식은 끊임없는 변화를 바탕으로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이다. 그래서 바르게 인식하는 식에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죽음과 삶의 경계 속에서 갈애가 생겨난다. 부딪침 다음에 느낌이 생기고, 느낌에 의해서 갈애가 생긴다. 시간연기의 흐름에 의해서 무상을 인식하고 나면 갈애는 자연히 소멸하게 된다.

시간연기는 무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거꾸로 무상을 인식하면 갈애가 소멸되고 이것이 바르게 변하게 된다. 갈애가 변해버리면 계정혜가 되는 것이다. 갈애가 좋은 쪽으로 제대로 변해버리면 탐진치가 계가 되고 정이 되고 혜가 된다. 계가 따로 있고 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탐을 바르게 잘 써면 바로 계가 되는 것이다. 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을 잘 써고 잘 절제하면 정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캄캄한 방에 촛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밝히면 어둠이 없어져 버린다. 바로 이 원리와 똑같은 것이다. 시간연기의 속성과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시간적 연기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시간연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게 된다.

〈영남대 의대 교수〉

지혜는 지식, 경험, 사색 집합체



新 불교사자성어

㊳ 일사일지(一事一智)

일사일지(一事一智)는 '한 가지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지혜를 얻는다' 는 뜻이다. 일사일지(一事一智)는 '간시궐(乾屎橛, 마른 똥막대기)' 이라는 화두로 유명한 운문선사의 말씀이다. 그의 법문집인 〈운문광록(雲門廣錄)〉에 나오는 '인일사 장일지(因一事 長一智)' 에서 줄인 말인데, 운문선사 외에도 많은 선승들이 즐겨 사용했다. 또 〈명심보감〉 등 일반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다.

〈명심보감〉 성심편에는 "불경일사(不經一事)면 부장일지(不長一智)"라고 하여,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하나의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 고 하였는데,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그 일을 계기로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경험을 통한 지혜인데, 그 지혜가 축적되고 축적되어 삶의 원천이 된다.

우리는 많은 일과 사건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 가운데는 의미 있는 경험도 있고 별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경험도 있다. 또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일상적인 경험도 있고 난생 처음 겪는 특별한 경험도 있다. 처음 겪는 일에서 보다 많은 경험과 지혜를 배우게 되지만,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하나의 일을 겪을 때마다 적어도 하나 또는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를 얻게 되고, 이렇게 축적된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는 우리의 삶과 인생에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지혜에는 지식을 통한 지혜가 있고 경험을 통한 지혜가 있다. 지식을 통한 지혜는 고전 등 책을 통하여, 또는 학교에서 배운 지혜로서, 이는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선인(先人)들의 삶과 경험이 축적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혜는 선인들로부터 전수한 지혜가 대부분이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전통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개인의 경험을 통한 지혜가 있다. 기존의 지식이나 전통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지혜, 또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로서, 이 역시 삶에 중요한 바탕, 모티브가 된다. 때론 개인의 체험과 경험, 지혜가 바탕이 되어 새로운 것을 창조, 발명하기도 한다.

지혜는 지식, 경험, 사색의 집합체이다. 지혜는 지식의 습득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식과 경험, 사색이 합해져야 한다. 학식이 전혀 없어도 의(義)와 불의, 옳고 그름 등 사리(事理)를 두부 자르듯이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서양의 고전을 줄줄 외울 정도로 박학다식해도 명예와 물욕에 어둡고, 인간사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학문을 해도 '학이시습(學而時習)' 이 안 된 사람으로 지식과 실천이 동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고전적인 언어로는 '서자서 아자아(書自書 我自我,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노는 인생)' 라고 하는데, 백과사전처럼 박학다식해도 단순 지식에 불과하고, 성찰과 사고력, 실천과 탐구정신 결핍으로 지혜를 창출해 내지 못한다. 사색과 학이시습을 하지 않으면 천재라도 백치가 된다. 그런 사람은 사전적인 역할은 해도 삶과 인생의 멘토가 되지는 못한다.

반면 배운 것은 별로 없어도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의지가 굳고 바르고 부지런하다. 이들의 지혜는 자신이 겪은 일, 지식과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난관이 닥쳤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 힘이 있다.

장주환 선생은 "지혜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탈출을 의미하며, 무지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며,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의 가치를 아는 것이며,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며, 성숙된 인성을 의미하며,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한 예상능력, 분석능력, 처리능력, 분별력, 판단력을 말하며, 또 지혜를 낳는다."고 하였다.

선승들은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들이다. 그들은 참선수행에서 터득한 하나하나의 사례, 즉 일사일지(一事一智)를 모아서 집대성시켰는데, 그 책이 유명한 〈벽암록〉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설두가 노파 간파한 도리는?



격절록 강설

㊳ 조주투순 2

[評唱 2]

時時有生機處. 便要垂手 問這婆子 婆子既知是趙州. 且道 覿面為什麼却道偷趙州笋去. 州云 "忽遇趙州時如何" 婆子便掌 也是這老漢惹得婆子與他手脚 他便休去. 且道 趙州是箇 什麼道理.

(조주에게는) 늘 생기처(生機處)가 있었다. (그래서) 곧장 두 손을 드리워(자비를 베풀어) 이 노파에게 묻고자 한 것이고, 노파도 이미 (그가) 조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 말해보라! 얼굴을 맞대고 어째서 조주의 죽순을 훔치러 간다고 하였던 것인가?

조주가 "홀연히 조주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하자, 노파가 바로 손바닥으로 후려갈긴 것 역시 이 노장이 노파에게 솜씨를 부려보도록 하였던 것인데, 그(조주)가 바로 쉬었다. 자, 말해보라! 조주의 이것은 무슨 도리인가?

五祖先師拈云 "趙州休去 不知眾中作麼生商量. 老僧也要露箇消息 貴要眾人共知 婆子雖行正令 一生不了 趙州被打兩掌 咬斷牙關 可謂婆子去國一身輕似葉 趙州高名 千古重如山" 但凡拈古 須似這般手段 見透古人意 方可拈掇他. 若不如此 便泥裏洗土塊.

오조선사(五祖先師, 오조법연, 1024~1104)가 염(拈)했다. "조주의 휴거(趙州休去, 조주가 쉰 것)를 대중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상량(商量)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노승이 이 소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노파가 비록 바른 법령(正令)을 행했어도 한평생 깨닫지 못했고, 조주가 (설령) 두 번 맞아도 아관(牙關, 입)을 다물었을 것이니, (이는) 가히 노파는 고향을 버리고 한 몸 가볍게 여기기를 마치 나뭇잎처럼 했고, 조주의 높은 명성(高名)은 천고에 그 두터움이 마치 산과 같다 할 것이다."

다만 염고(拈古, 고칙을 비평하는 것)는 모름지기 이런 솜씨를 가지고 고인의 뜻(古人意)을 꿰뚫어 봐야 염철(拈掇, 이야기를 꺼낼)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바로 진흙 속에서 흙덩이를 씻는 격이 될 것이다.

雪竇為他作得這般工夫 見得透前後 便云 "好掌 更與兩掌也無勘處" 且道 雪竇意在什麼處. 當時作得箇甚麼道理 勘得這婆子去 諸人照顧 切忌著掌.

설두는 그가 (바로)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후를 꿰뚫어 보고 말하기를 "(손바닥으로) 잘 후려갈겼다. (하지만) 다시 두 번 갈겨도 역시 간파할 것이 없을 것이다"고 하였던 것이다. 자, 말해보라! 설두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당시에 무슨 도리를 얻었기에 이 노파를 감파한 것인가? 모두들 (자기 발밑을) 잘 살펴보되(照顧, 照顧脚下), 절대로 손바닥으로 후려갈기지는 말라!

*중국 송나라 이사중李師中이 바른 말을 하다가 귀양가는 당개(唐介, 송나라 강릉 사람, 1010~1069)를 송별할 때 지었던 시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홀로 바치는 충성을 스스로 자부하며 대중과 함께하지 않고/홀로 서서 감히 말하는 사람은 어려운 바이거늘,/고향을 버리고 한 몸 가볍게 여기기를 마치 나뭇잎처럼 하니/ 높은 명성은 천고에 산처럼 두터우리라.(孤忠自許衆不與 獨立敢言人所難 去國一身輕似葉 高名千古重似山)

함께 노닐던 영민하고 준수한 이들의 낯은 얼마나 두꺼운가./죽지 않고 간사하게 아첨하는 이들의 뼈는 이미 싸늘하네./하늘이 우리 황제를 위해 사직을 떠받들게 하거늘,/그대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것을 허락하겠는가.(竝遊英俊顔何厚 未死奸諛骨已寒 天爲吾皇扶社稷 肯教吾子不生還)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㊳ 이해의 길 18

경전 탄생의 비밀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 모두 석가모니 붓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거기에는 붓다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국, 한국 승려의 작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붓다가 45년 동안 설한 가르침도 많은데, 여러 인물들의 저술도 포함되어 있어서 경전의 양이 방대한 것이다. 불교의 경전을 가리키는 명칭도 불경(佛經), 니까야(Nikaya), 아함경(阿含經), 삼장(三藏), 대장경(大藏經) 등 다양하다. 그렇다면 경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며, 이름이 서로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붓다의 입멸 당시 교단의 2인자인 가섭 존자는 스승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쿠시나가라로 향하던 도중 붓다의 열반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런데 한 비구는 태도가 많이 달랐다. 이제 더 이상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졌다며 오히려 좋아하는 것이었다. 가섭은 위기감을 느꼈다. 스승이 방금 돌아가셨어도 이런 모습인데, 시간이 흐르면 교단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던 것이다. 그는 교단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붓다가 남긴 가르침과 계율을 온전히 전승하는 일이었다.

붓다의 장례식이 끝나고 3개월 후 마가다국의 왕사성 칠엽굴(七葉窟)에서 첫 번째 편집회의가 열렸다. 처음 모임이 열렸다 해서 이를 제 1결집(結集)이라 부른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순서대로 제 2결집, 제 3결집이라고 한다. 제 1결집에는 교단을 대표하는 5백 명의 비구들이 모였다. 의장은 당연히 가섭 존자가 맡았다. 평생 붓다의 곁을 지켰던 다문제일(多聞第一) 아난 존자가 앞으로 나와 붓다께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설했는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如是我聞).' 고 보고하였다. 그러면 5백 명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 모두 함께 외웠다. 함께 외운다고 해서 이를 합송(合誦, Samghiti)이라 한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지계제일(持戒第一)이라 불린 우바리 존자가 앞으로 나와서 같은 방식으로 붓다가 제정한 계율을 함께 외웠다.

이처럼 제 1결집에서는 붓다의 말씀인 경(經)과 승가의 생활규범인 율(律)이 완성되었다. 불교의 모든 경전이 '여시아문(如是我聞)' 으로 시작하는 것도 붓다의 말씀을 편집하는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교의 경전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외우면서 탄생하였다. 500명이 모여 붓다의 말씀을 합송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저 '장엄하다.' 는 표현 외에는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러한 합송의 전통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지다가 문자로 된 경전이 만들어진다.

경전은 보통 경율론(經律論) 3장(藏)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제 1결집에서는 경장과 율장만 갖추어졌고 경의 주석서인 논장(論藏)은 부파불교에 이르러 확립되었다. 논(論)은 범어로 '아비달마(Abhidharma)' 라고 하는데, '법(法)에 대한 연구' 라는 의미다. 논장은 20여 개의 부파가 각자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붓다의 말씀인 경을 해석한 것이다. 부파불교가 중생구제의 이념은 외면한 채 개인의 깨달음만 추구하는 소승불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논장을 확립하여 삼장을 완성한 것은 중요한 공헌으로 인정해야 한다.

본래 3장은 범어로 '트리-피타카(tri-pitaka)' 라고 하는데, 3개의 바구니 혹은 창고라는 뜻이다. 붓다의 가르침과 계율, 주석서를 담고 있는 바구니, 그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라는 것이다. 대승불교에 이르러 〈금강경〉이나 〈화엄경〉 등을 비롯한 수많은 대승경전과 이에 대한 주석서들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관하기에 3개의 창고가 너무 비좁아서 커다란 새 건물이 필요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대장경(大藏經)이다. 글자 그대로 근본경전, 대승경전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작품들도 보관할 수 있는 아주 큰(大) 창고(藏), 대형 도서관이 만들어진 셈이다.

그리고 빠알리어로 된 근본경전을 니까야(Nikaya)라고 부르며, 한역(漢譯)된 것은 아함경이라 한다. 그것들이 만들어진 배경과 명칭은 달라도 모두 붓다의 생생한 가르침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자 우리들 삶의 나침반이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10.27법난, 역사 기억하자"

조계종 10.27법난 39주년 기념법회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10.27법난 제3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내년이면 법난이 일어난 지 40년이 도니다. 더 이상 기념관 건립을 지체하거나 미룰 수 없다"며 "올해 안에 구체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멀지 않은 시간에 불사 계획을 종도들과 함께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 금곡 스님은 "법난 피해자분들이 최대한 살아계실 때 결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진실이 규명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수행자로서 원만한 삶의 회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희생자는 추모하고 피해자는 치유해 모든 종도들이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미래 상을 펼쳐낼 수 있는 날이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찾아가는 어르신 생일상

마이산 탑사 · 쌍봉사 봉사활동 펼쳐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지역 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0월 23일 진안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봉사단(단장 윤복길)과 진안 쌍봉사 섬김봉사단. 진안동부새마을금고(이사장 서기옥)가 마련했다.

생일잔치에는 진성 스님, 보경 스님, 성덕사 도홍 스님, 산청 왕복사 자우 스님 등 스님들과 진안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참여해 직접 만든 생일케이크를 앞에 두고 어르신들과 생일축하노래를 불렀다.

탑밴드의 난타공연과 색소폰 연주에 이어 쌍봉사 보경 스님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요를 불렀으며, 지역가수 서윤의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진성 스님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했던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행복하시길 바란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늘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경 스님도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게 지역의 어른으로서 남아계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만원력 · 미래불교 결사 공동체 열겠다"

Interview

'금강경 공부 결사' 안거 여는 일감 스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1월 15일부터 12회 강독 법회
참선 · 문답도… '정혜쌍수' 강좌
일지로 108배 · 경전읽기 유도해
20 · 30대 참여자에겐 회비 할인

"현재 한국불교는 '미래불교'를 위한 새로운 수행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수행과 보시, 회향이 이뤄지는 부처님 공동체를 오래 전부터 꿈꿨습니다. 지금 조계종 제36대 집행부의 '백만원력'도 결국 이 같은 가치와 맞닿습니다. 먼저 경전 공부 결사를 통해 백만원력과 미래불교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사진〉은 〈금강경〉 공부 결사'를 시작하는 연유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일감 스님은 도서출판 민족사와 함께 동안거 결제 직후인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종로 두산위브 '탄허강숙(634호)'에서 '2019년 동안거 사부대중 수행결사 〈금강경〉 강독법회'를 개최한다.

총 12회 법회가 이뤄지는 수행결사는 단순 강독에만 그치지 않는다. 결사 동참자는 매일 108배와 〈금강경〉 1독을 하고 조계종 포교원에서 제작한 '수행일지'에 수행일기를 기록해야 한다. '수행일지'는 매주 강독법회에서 점검받아야 한다.

강독 법회는 선교를 겸수한 '정혜쌍수'의 특징도 가진다. 법회는 삼귀의 · 참선 · 문답 · 〈금강경〉 강독 · 법문 순으로 진행된다. 교재는 일감 스님의 저서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으로 교재와 수행일지는 무료로 배포된다. 수행결사는 오대산 중대사자암 적멸보궁 순례로 회향되며 법회 동참자들의 뜻을 모아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서울에서 여러 소임을 보고 있는데 안거철이 되면 수행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안거는 한 곳에 모여 참선 정진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시에서 포교나 소임을 보는 스님들이 마음 내어 공부 · 수행결사를 하는 것도 일종의 안거라고 생각됩니다. 강독법회는 사부대중이 경전을 강독하고 매일 수행하면서 서로를 절차탁마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금강경〉 공부 결사'에 앞서 알려진 '위례천막결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행결사가 한국불교에는 필요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불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족한 것이 '다양함'입니다. 다양한 결사는 한국불교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수행붐'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불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울수록 함께 해야 합니다."

한편, '〈금강경〉 공부 결사'는 사부대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0명 정원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1인당 20만원. 단, 젊은 공부인을 위해 20대는 10만원, 30대는 15만원으로 할인된다. 접수는 이메일(tanheogangsuk@naver.com)과 전화로 하면 된다. (02)732-2403~4

"전통 사경으로 부처님 말씀 장엄"

대한민국 대한명인 전통사경 제1호 겸당 오현주 작가



"대한명인 오현주란 이름은 저를 배려와 격려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 10월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명인 추대식에서 겸당 오현주 작가〈사진〉가 전통사경 부분에서 명인으로 추대됐다.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인회가 주최한 명인 추대에서 고려 전통사경 부분에서는 처음으로 명인이 인정됐다. 오 작가는 사경을 하도록 이끌어 준 은사스님과 도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몇 번이나 명인 추대 제의가 있었지만 후학 양성과 활동을 위한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해 거절해왔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은사스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 작가는 직지 국제사경공모전 연 3회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탄허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 사경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 동아 국제미술대전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하는 등 변상도와 사경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왔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서예 문인화 심사위원, 한국 서가협회(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대한민국 서예전람회(국전) 현대문인화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한 · 중(韓 · 中) 서법 북경 초대전에서 고려사경과 변상도를 전시했으며 인도 초대 마더 테레사기념관 벽화, CMS college에 훈민정음을 조형화하여 벽화를 작업했다.

"오직 사경만 할 수 있길 서원하고 이후 '전법'을 원력으로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후학을 양성하며 부처님 말씀을 장엄하는 사경을 중단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현재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오 작가의 발원이다. 오 작가는 전통사경에 대한 가치를 널리 알려 사경 도반이 많아지고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발원을 쉬지 않고 있다. 오 작가는 사경을 통한 수행을 강조하며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사경은 문자사리, 즉 법사리라고도 하며 부처님 진신사리와 동격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려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재료와 도구를 최상으로 선택해 사경 수행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경 수행을 통해 글자를 쓸 때 자유자재한 운필법인 중봉(中鋒)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 사상이 둘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금산사 점찰신앙 살펴보다

금산사–한국정토학회, 제23회 학술대회서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와 한국정토학회(회장 김광식)는 10월 18일 금산사 보제루에서 '금산사와 점찰신앙'을 주제로 제23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과 前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김광식 한국정토학회장, 동국대 정각원장 묘주 스님 등 스님들과 중앙승가대 김상영 교수, 충남대 김방룡 교수 등 학자까지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국대 · 예금보험공사 MOU

10월 22일, 학생 취업역량강화 등 협력



동국대(총장 윤성이)와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10월 22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따라 양 기관은 △도서교류 △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서비스 △학술연구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재직자의 특강, 맞춤형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자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 사회적기업가 양성 박차

조계종 사업부 '불교 사회적경제 워크숍' 개최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부장 주혜)는 10월 18~19일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사람과사회적경제가 주관한 '불교 사회적경제 소셜비즈니스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사찰 종무원과 스님을 대상으로 창업 입문교육을 실시, 종교계의 유 · 무형 자산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회적 기업가로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윤호섭 기자**

미국에 탄생한 '달라이라마 거리'

리치먼드시, 달라이라마 美의회 골드메달 수여 기념

박영빈 객원기자

미국 버지니아주의 주도 리치먼드시에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이름을 딴 거리가 생겼다. 이 특별한 소식을 10월 18일 리치먼드시의 지역매체 '리치먼드 콘피덴셜' '리치먼드 스탠다드'가 보도했다.

이달 초, 북캘리포니아 티베트인협회(TANC)는 협회 본부건물이 위치한 거리 명칭을 달라이라마 거리로 변경해 줄 것을 리치먼드시에 요청했다. 개명을 요청한 거리는 리치먼드시 북쪽 헌팅턴 지구의 콜롬비아가(街)와 산 호아킨로(路) 사이 약 1블록 가량의 길이다.

TANC 측은 "개명 요청의 이유는 12년 전 미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의회 골드메달'을 달라이라마가 수여한 것을 기념하고, 그분이 세계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5년 전 리치먼드시를 직접 방문했으며, 시는 매년 7월 6일을 '달라이라마의 날'로 선언한 바 있다.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10월 17일 저녁, 약 70여 명의 망명 티베트인들과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즈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인 개명기념식이 개최됐다. 기념식장의 단상에는 2014년 달라이라마가 협회를 방문했을 당시 앉았던 법좌가 놓이고, 법좌 위에는 달라이라마의 사진이 안치됐다.

티베트인협회, 거리 개명 요청
시의회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10월 17일 개명기념식 열려
"달라이라마 같은 행위 기대"

기념식에 참석한 티베트인들은 달라이라마 거리라는 이름이 새로 붙은 안내표지에 전통적인 공양물인 흰 스카프를 묶으며 경의를 표했다. TANC의 부회장인 잠양 된둡 씨는 "달라이라마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느낌을 받는다"며 "앞으로 많은 이들이 이 거리에서 달라이라마의 이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기쁘다"고 전했다.

티베트 불교의례와 함께 진행된 기념식에서 TANC 회장인 텐진 랑돌 씨는 "리치몬드시가 변함없이 망명 티베트인들의 지지자가 되어 준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리치몬드의 연대는 티베트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개명은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에겐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의미를 가지며 매우 고무적인 사건"이라고 기쁨을 표했다.

랑돌 씨는 "TANC 본부가 접한 길이 달라이라마 거리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를 계기로 TANC는 망명 티베트인들과 미국시민들 간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TANC는 현재 리치먼드에 거주하는 망명 티베트 어린이들을 위한 티베트어 교육을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곧 제2국어로 티베트어를 가르치는 공인초등학교를 TANC의 명의로 시작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 축사를 맡은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이름에는 힘이 있으며, 그 힘은 이름에서 행해지는 행위에서 나온다. 달라이라마라는 이름에는 많은 힘이 있다. 그분의 이름이 붙은 이 길에서 달라이라마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달라이라마 거리로 변경된 표지판. 사진출처=리치먼드 컨피덴셜

부다가야서 출가자들 공양물 다툼

우안거 성만 알리는 회향법회
"공양물 뺐겼다"며 몸싸움 벌여
위장 출가자인지 조사도 진행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불교 최고의 성지 부다가야에서 출가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0월 14일 인도의 '타임즈 오브 인디아' '원 인디아' 등 현지 언론들은 이 공양물 분배를 두고 다툼을 벌인 스님들의 소식을 보도했다.

사건은 10월 13일, 부다가야의 마하보디(Maha Bodhi) 대탑에서 일어났다. 당시 대탑에서는 부다가야 국제불교협회의 주관으로 우안거가 성만했음을 부처님께 알리는 회향법회가 봉행됐다. 이번 법회는 베트남에서 온 불자들을 공덕주로, 부다가야에 상주하며 우안거를 성만한 내빈 스님들에게 가사와 보시금을 공양 올리는 식순이 준비됐다.

하지만 공양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행사장 한쪽에 앉아있던 출가자들 중 일부가 소동을 일으켰다. 이들 중 몇몇은 받았던 공양물을 빼앗겼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감정이 격화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특히 싸움을 시작한 두 스님 중 한 스님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공양물의 배분문제로 몸싸움을 일으킨 스님들. 사진출처=타임즈 오브 인디아

마하보디대탑의 소임자인 찬달리 스님이 경찰에 제출한 경위서 따르면 "행사장 한쪽에 4~50여 명의 출가자들이 앉아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법회에 내빈으로 초대받지 않은 이들로, 본래 공양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많은 불교도들이 충격을 받았으며,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유감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당시 법회에 참가했던 여러 불자들도 "문제를 일으킨 출가자들은 법회장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 어떤 식순에도 참석하지 않은 별개의 그룹"이라고 증언했다. 어느 불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곳에서, 가사를 입은 출가자들은 오히려 재물을 탐해 싸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하보디사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아비섹 싱 씨는 "CCTV를 통해 문제를 일으킨 이들을 확인했으며, 주범인 2인에 대해 형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두 사람이 적절하게 수계를 받은 출가자인지, 혹은 출가자를 가장한 걸인인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비섹 싱 씨는 "만약 실제 등록된 출가자라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서 국제불교협회는 두 사람을 멸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부다가야에서는 최근 불교 출가자를 가장한 걸인 혹은 타종교 수행자들의 훼불행위와 과도한 구걸행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쓰촨성 불상이 사라진다

링윈산 종교상징 은폐 나선 중국공산당

4A급 관광지 링윈산 일대서
마애와불 · 거대석불 은폐해
종교상징물 제거 방침 거세

중국공산당이 불교와 도교의 순례지로 유명한 쓰촨성 링윈산의 종교상징 은폐를 위해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의 종교 자유와 인권문제를 다루는 온라인 매거진 '비터 윈터(Bitter Winter)' 10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링윈산 내 수천 개의 종교상 등을 은폐하는데 최소 약 113만 달러(한화 약 13억2000만원)를 사용했다. 쓰촨성 남서부 난충시에 위치한 링윈산은 중국 내에서도 4A급 관광지로 선정될 만큼 자연 · 문화적 요소가 뛰어난 곳이다. 4A급 관광지는 가장 높은 5A급의 바로 다음 단계로, 중국 내에서도 많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관광지다.

링윈산은 지난해 9월 모든 종교적 요소를 제거하라는 중국공산당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7개의 대형 조각상과 수천 개의 소규모 조각상, 기호, 표지판 등이 사라졌다. 이뿐만 아니라 종교적 조각상과 관련된 모든 홍보 콘텐츠도 관광지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삭제됐다.

중국공산당의 명령에 의해 가려진 대표적인 종교 상징물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을 묘사한 길이 72m의 마애와불이다. 마애와불은 대나무 구조물과 대형 천으로 가려져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지역주민에 의하면 마애와불을 가리는 데는 한화 약 3억3000만원이 소요됐다. 이는 마애와불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예산보다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광객은 "정부가 납세자의 세금으로 인력과 자원을 낭비해 종교상징물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높이 99m 크기로 조성되던 석불은 미완성 상태로 작업이 중단됐다. 링윈산의 가장 유명한 명소로 꼽히는 미완성 아미타석불은 높이 99m로 설계되고, 주변 절벽에 9999개의 작은 불상을 조각해 '만불'을 표현하려 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종교 상징물 제거 방침으로 인해 불상 상체(높이 48m)와 7000개의 작은 불상만 완성된 뒤 공사가 중단됐다. 작업자들은 이제 석불을 가리기 위한 옹벽 건설작업에 나섰으며, 여기에는 한화 약 9억4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33점의 관음석상, 24점의 나한 석상, 11점의 석굴 등이 담벼락이나 대나무 등에 의해 가려졌다.

불교 상징물 외에 도교사원의 뜰을 장식한 5개의 큰 조각상도 제거돼 건물만 남게 됐으며, 도교의 십이금선(十二金仙) 중 하나인 자항진인(慈航眞人) 동상은 나무판자로 가려져 있다가 나중에 아연도금 철판으로 밀봉됐다.



길이 72m에 달하는 마애와불을 가리기 위해 대나무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습. 사진출처=비터 윈터

비터 윈터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의 이 같은 방침은 종교상징물을 가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폭약 등으로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다만 링윈산은 산사태 등 별도의 재난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종교 상징물을 가린 것으로 알려졌다.

링윈산 인근 주민들은 "지방관리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경찰을 배치해 동상 은닉 작업을 방해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하겠다고 말했다"고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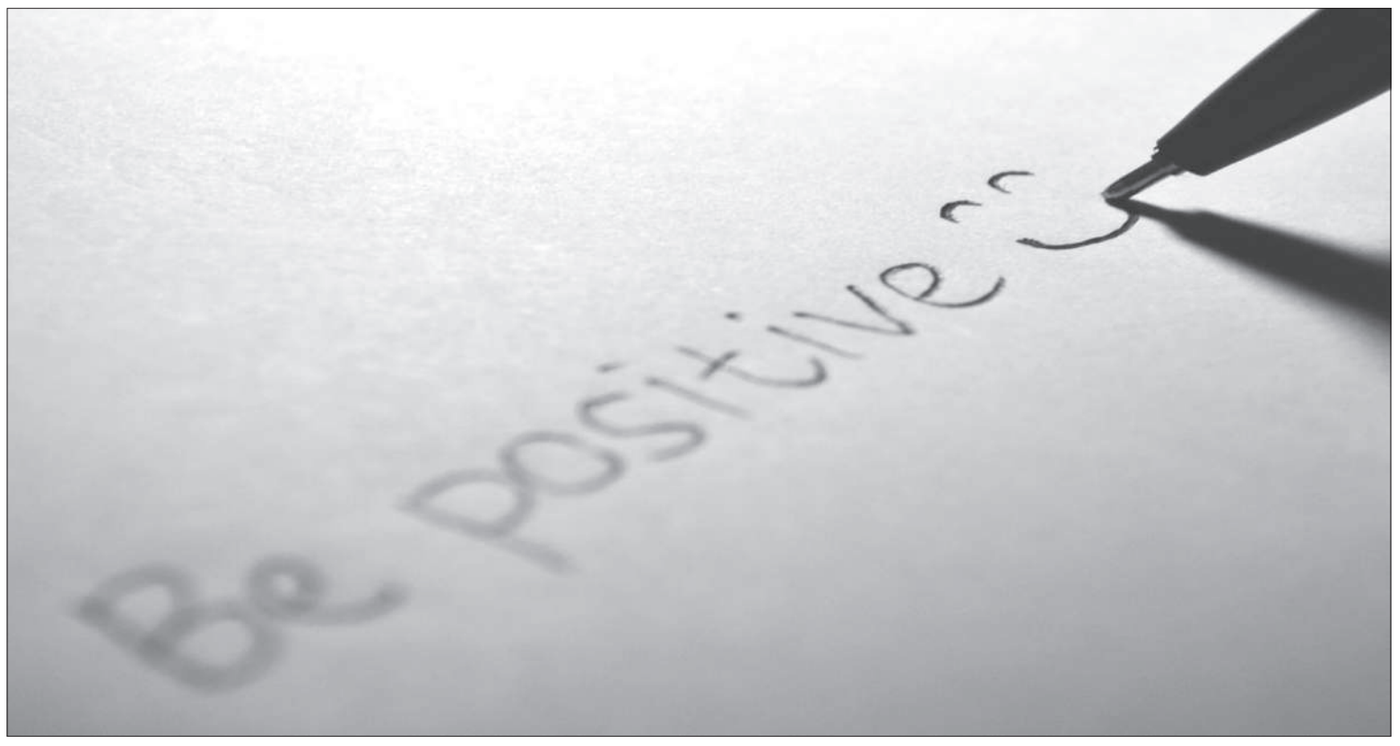
한 마을 주민은 "마오쩌둥 시대에 사원이 철거되고 불상이 파괴된 일이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다. 시진핑의 명령에 누가 감히 싫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어 말했다. 윤호섭 기자

논리적 전개로 본 내면화된 마음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⑳ 구체적 글쓰기의 가치



나의 어느 날 사건, 취재수첩

'나의 어느 날 사건, 취재수첩' 은 생애 기억할 만한 기억의 카드를 찾는 일부터 시작이다. 크든 작든 내 사건 카드의 내용을 신문기사처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진술하는 작업이다. 비록 시골집 액자 속 색 바랜 사진 같은 사건들이긴 하다. 그 일의 효용성이 전혀 보이지 않기도 하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 '나의 어느 날 사건, 취재수첩' 글쓰기를 한다면, 미처 몰랐던 나의 삶이 환하게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오늘 이 순간과 그 사건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끈이 있음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옛 기억 속 사진 한 컷 같은 사건은 어떤가.

고2 시절 어느 봄날, 그는 가출을 감행했다. 책가방 대신 여행가방을 어깨에 둘러메고 마당에 서서 어머니한테 말했다. "학교 다녀올게요." 샘가에서 무언가 씻고 있던 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응, 늦겠다. 어여 가라." 대문 경첩 삐걱이는 소리가 신경에 거슬렸다. 그는 어깨를 구부려 쪽대문을 빠져나와 문을 천천히 당겨 닫았다. 쪽대문이 닫히기 직전 샘가에 앉아 있는 어머니 등허리 쪽에 시선이 스쳤다. 어머니 앉은 모습은 잘 씻지도 않고 방치해둔 장독 같았다. 학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동네병원 간판이 보이는 오른쪽으로 꺾어 걸어야 했지만, 그는 왼쪽으로 꺾었다. "어디 가냐?" 친구들이 서둘러 걸으면서 건성으로 물었다. "응, 나, 가출 중!" 그는 대답했고, 친구 중 한 녀석은 '파이팅' 하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더니, "학교에서 보자"라면서 이빨을 내보였다.

우리 삶의 책갈피에는 말라붙은 단풍잎 같은 사연들이 하나씩 끼어있게 마련이다. 어차피 삶이라는 게 크고 작은 사건의 흩뿌려짐 같은 나날이리라. 워낙 깨알 같은 일들이 난무하다보니 이런 저런 사건의 연속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신의 삶이라는 좁다란 우물. 그 속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이고, 그 속에서 배운 것이 공부고, 그 속에서 만난 인연이 벗이고, 친척이다. 그런 대롱 같은 우물 속에서 살다보니, 나는 나 자신이 허물기 힘든 벽이고, 당신은 당신 자신이 벽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우물에서 뛰쳐나와 양팔을 펼쳐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와 존재를 내보이려 한다. 그것이 정상인가. 당연하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기본 욕구다. 누구에겐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생존욕구와도 긴밀하다.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젖먹이를 상상해보라. 그런 점에서 '인정욕구' 는 생애 첫 지점부터 발생한 욕구일 수도 있다. 당신은 '나 이런 욕구는 진즉에 접었어' 라고 말할 자신 있는가. '나의 어느 날 사건, 취재수첩' 은 당신 삶의 히든카드를 한 장 집어 올리는 일이기도 하다.

- 아직 감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거나, 여전히 모호한 기억으로 남은 일들을 '작은 카드'에 적듯이 적어본다. 취재기자처럼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으로 적는다. 단 한 줄이어도 좋다.

-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사건이라고 할 만한 내용을 하나 발췌하여, 신문기사처럼 적는다. 제목은 기사의 핵심이다.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도, 그 안에서 제목을 찾고, 기승전결을 이어가보라. 다 쓰고 난 후, 제목을 바꾸어도 좋다.

- 아직 오지 않은 어느 날 사건을 취재형식으로 적어본다. 자신의 기대나 기원 등이 섞인 내용을 상상하면서 건조하고 극 사실적으로 글쓰기한다.

당신은 어쩌면 기사체 글쓰기를 한 차례도 써보지 않았다. '이 단원은 나하곤 상관없겠군'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다행이다. 당신은 '기사체' 라는 것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사체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헤드라인 찾기' 다. 제목을 왜, 맨 먼저 달아야 할까.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당신 또한 제목만 읽고 넘긴 기사가 부지기수이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기사 제목' 은 필수다. 제목을 다는 순간 당신은 기사 내용의 전체 그림을 무의식 중에 그린 셈이다. 가령,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려다 컵을 깨뜨렸다면 '아침부터 사고 치다' 라는 제목을 달 수도 있다.

제목은 독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는 밑밥이지만, 글쓰기명상은 독자 없는 기사체이므로 내 멋대로 달아도 상관없다. 이왕이면 간결하고, 핵심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 흥미 유발하는 제목을 창작해보라. 제목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기사의 첫 문장이다. 제목에 낚인 독자들도 처음부터 다 읽을 생각으로 기사에 시선을 꽂는 게 아니다. 제목은 흥미로운데, 무슨 얘기지? 첫 줄만 읽어보면 대충 알겠지 하는 생각으로 첫 문장을 읽어가기 십상이다.

오래 전 묻어둔 기억 속 한 조각
미처 잊고 지낸 사건을 꺼내보자
〈시크릿〉처럼 결과에 매이지 말고
과정도 담아내는 글쓰기를 해보자

첫 문장에서는 어지간하면 6하 원칙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여섯 사항을 첫 문장에 우겨넣기는 간단치 않다. 더군다나 혼자 읽고 말 기사이지 않겠는가. 무리하지 말자. 다만,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내 사건을 재정리한다는 마음으로, 6하 원칙을 활용해서 첫 문장을 적어본다.

제목 : 모범생의 가출

1995년 5월 24일경, 고 2생, 박 아무개 군은 본인의 책상 서랍에 자퇴원을 써놓고 아침 등굣길에 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가족과 선생님, 친구들을 놀라게 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소식이 없어서 박군의 방에 들어가 본 아버지 박모 씨는 평소와는 다르게 잘 정리된 박군의 방을 이상하게 생각, 서랍에서 박군이 남긴 학교 자퇴서를 발견함으로써 박군이 가출한 것을 알게 된 것(이하 생략).

성취 연설문, 성취 소설 쓰기

'성취 연설문, 성취 소설 쓰기' 는 당신의 성공을 내면에 각인시키는 기술이다. 원하는 것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며 무의식에 저장하는 글쓰기다. 이 내용이 특히 중 · 고등학생들에게 알려지고, 실행되기를 바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크릿' 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인류의 1%에게만 비밀리에 전수돼 온 부와 성공의 법칙' 이라는 부제가 따라다닌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진 광경을 자나 깨나 생생하게 그리면 성취된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보면 많은 사람이 매혹됐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칼 사이몬톤(O. Carl Simonton)이라는 심리학자는 이게 아니라고 손 사레를 쳤다. 박사의 주장은, 미래의 좋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현재 그것 없음' 을 반복적으로 각성하게 되어, 오히려 일이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소위 '반 시크릿' 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 주장은 일의 '과정' 을 충실하고 생생하게 그려보고 실행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실험 사례 등을 통해 자신의 가설을 입증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하나씩 실천해 나아갈 때,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다.

논의 핵심은 자명하다. 과정 중심인가, 결과 중심인가. 당신의 마음을 살펴 직설하면, '과정' 이라는 놈은 생각만으로도 까탈스럽고 복잡하다. '공주와 왕자는 결혼하여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다' 는 식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편하고 기분 좋다. '험한 폭풍우, 적의 모략과 술수, 산적이나 맹수들과 목숨 걸고 싸우며 공주를 찾아가는 과정' 을 그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귀찮다. 사이몬톤 박사는 바로 거기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쉽고 가볍고 깔끔한 상상 틈틈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동지섣달 문풍지 뚫는 칼바람처럼 꽂혀든다는 것이다.

'성취 연설문, 성취 소설쓰기' 는 이런 의구심을 극복하고, '시크릿' 과 '반 시크릿' 을 모두 보완해주는 방법이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글쓰기를 할 때, 가슴에 따뜻한 울림이 둥둥거리기도 할 것이다.

- 자신이 원하는 일, 하나를 제목으로 적는다.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낱낱이 적는다. 원하는 것을 모두 성취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당신의 후배나 팬들에게 낭독해줄 연설문을 작성한다.

- 원하는 결과를 이루었을 때 터져 나오는 환호성, 감탄사, 듣고 싶은 칭송의 말들을 생생하게 적는다. 그런 후, 그 과정에서 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조건의 이름을 하나 만든다. 그 사람과 결투를 하거나 타협을 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헤쳐 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적어간다. 이때, 대화나 지문 등을 적절히 배합한다. 소위, 성취 소설쓰기이다.

-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대학 졸업식 연설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설문을 구해서 자신의 내용으로 재구성해본다. 당신의 일이라면 무조건 축복해줄 사람들이 단상에 선 당신을 자랑스럽게 쳐다보는 광경을 상상하면서 적어간다.

내면화는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알기 어려운 미세먼지나 영상 따위에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마음깊이 뿌리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도 모르게.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내면화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사회의 풍습이나 윤리, 규범 같은 거대 담론은 물론, 어쩌면 당신의 손가락 하나 까닥하는 의도까지도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

내면화된 당신의 의식은 나의 언행 등을 통해 언제 솟구칠지 모른다. 예측하지 못한 순간 검푸른 바다에서 튀어 올라오는 돌고래처럼. 양자물리학에 의하면, 당신의 내면의식은 거대한 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인류는 원자핵의 힘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성취 연설문, 성취 소설 쓰기' 는 그런 점에서 과정과 결과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강한 에너지 만들기다.

당신이 스티브 잡스처럼 삶의 과정과 역경을 드러내는 연설문을 쓴다고 생각해보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현재형으로 한줄 한줄 적어가보는 것이다. 그 연설문을 군중 앞에서 읽어주는 광경을 상상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듯이 글을 써보라. 아래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 축사 중 일부다.

(상략) 내가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 중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운 시험이었지만, 환자는 가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때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신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이하 생략)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대행 스님

마음이 바닷물과 같고 허공과 같이 돼라

수계를 받고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하는지요

질문 올해 수계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오계를 받고 나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매년 수계법회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편으로만 계를 받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님의 뜻이 한 찰나에 온 누리에 서리는 것이고, 악한 일에 휘달리지 않을 것이고, 또는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가면서 공부에도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여우 꼬랑지라도 봐 둬야 문리가 터지고 총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전력이나 자력, 통신력, 광력이 같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율을 지킨다 하면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죠. 단 오계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관념으로 계율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는 생각을 다 놓고 욕심과 집착과 관습을 다 놓아 버리게 된다면, 놓고 가는 도중에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그냥 자연적으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계율 안 지키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닷물과 같고 허공과 같이 돼라. 바다에 별의별 물이 다 들어가도 그냥 한 바다의 물로 돌아가고, 이런 물 저런 물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로 젖는다. 어떤 거든지 다 젖는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탐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남을 모함하지도 않고, 둘로 보지 않기에 일체를 내 아픔 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공심으로서 생각한다면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지 않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에 지계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이 있는데, 인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일어나는 마음을 꾹꾹 눌러 참는 게 인욕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참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참는 것은 참다운 인욕이 아니죠. 놓는 것이 인욕이에요. 그 자체를 놓는 것이 인욕입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하지 않고 놓으라고 그랬죠.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찾는다면 둘이 되니까 그냥 놓아라. 너한테 보림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계를 받고 둘로 보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거를 놓는다면 그대로 그것이 인욕이요, 참답게 계를 지키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계를 받는 그 뜻을 마음으로 새겨야지, 그냥 한 번 받았다 두 번 받았다 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를 설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고 받는 사람도 책임이 있고 부처님의 뜻도 책임이 있으니 잘 생각해서 계를 지키며 또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극락에 간다고 하죠? 그러나 계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만약에 승천해서 극락으로 가는 길을 지금 청와대로 비유를 한다면, 청와대에는 근거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계를 받은 그 뜻의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거추장스럽게 방편으로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거짓으로 했다면 내 책임이 아주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계를 설하는 사이 없이 설하고 주는 것이니 여러분도 받는 사이 없이 받아서 오직 뜻으로 간직하면서 허탈히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자체도 찰나찰나 공해서 변해 돌아가고 부서지고, 우리도 태어나서 자라면서 젊어지고 늙어지고, 늙어지면 병들어 없어지고 찰나찰나 또 생하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어서 한마음으로, 한마음에서 나오는 걸 한마음에다 되입력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니 여러분은 그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애를 써서 피땀을 흘리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벌어서 옳게, 단 10원을 쓴다 하더라도 옳게 써야지 허무하게 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 지속되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끊어질 수도 있고, 현실에 한 발짝도 내밀지 못한 채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를 주는 내 책임도 있느니만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계를 받는 것이, 계첩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거짓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고 부처님의 뜻이, 삼라만상 우주 세계가 말없이 말로 전달되고, 손 없는 손이 온 누리에 꽉 차 있고, 걸어 다님이 없이 평발을, 부처님의 발은 한발로 디뎠기에 평발입니다. 이렇게 광대무변한 도리를 여러분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모두 멋쟁이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참다운 인간으로서 진실하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자기 양심이 진실하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죽인대도 두려울 게 없고, 살린대도 뭐, 좋을 것이 없고, 항상 중심을 가지고 평등한 마음으로 두루 굴리면서 자기라는 생각은 쑤욱 빼 버린다면 일체가 한마음으로 세세생생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새 바깥으로 끄달리게 됩니다

질문 참나를 발견해 보겠다고 늘 안으로 마음을 집중하려고 하는데도 어느 새 이 마음이 바깥으로 끄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바깥으로 끄달리지 않고 참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주인공이라고 하는 자체는 개별적인 내가 아닙니다. 내 몸속으로도 수십억 마리가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 마음으로 짓는 그 찰나가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바깥의 외부의 일도 바로 나 자체 이 개별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밖으로도 개별적인 나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생명들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나야. 내 거야.' 이럴 수가 없죠. 여러분 몸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회전해 주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또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말도 하게 하고 똑똑하게 다니게도 해 주는데 모두 내가 혼자 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속에 들어 있는 그 생명체들은 무시하는 거죠.

모두가 둘이 아니게 한마음으로서 서로 고정됨이 없이 내부나 외부나 같이 공생, 공용, 공체, 공식 하고 이 우주 전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인 나 하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총합해서 '주인공'이라 한다면 내 근본에다가 맡겨 놔야죠. '야! 내가 억겁 천년 전서부터 이끌어 온 것도 바로 내 주인공이요, 나를 형성시킨 것도 내 주인공이요, 바로 지금도 끌고 가는 게 바로 내 주인공이요, 내 주인공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 내 아픈 것도 내 주인공밖에는 병을 낫게 해 줄 수 없다. 내가 가난한 것도 이끌어 주는 건 바로 내 주인공밖에 없다. 내가 일이 막혀서 안 되는 것을 이끌어 주는 것도 내 주인공밖

☞ A18면으로 계속

자불의 주인공을 진짜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 A17면에서 계속

에 없다.' 이렇게 진짜 당황하지 않고, 이 물질적으로다가 자꾸 끄달리지 않고, 옆에서 죽는대도 눈 하나 깜작거리지 않고 주인공에다 맡길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저절로 바로 승천이 돼요. 각자 여러분 한 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도 없고 생활도 없고 부딪칠 일도 없고 부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것이고 진리가 있는 것이며, 생활이 있는 것이고 바로 가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끄달리지 마시라는 것은 세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내 몸을 이끌어 가는 데에 있다. 셋째는, 내 가정과 모든 사회를 끌어가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부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너무 멀리 찾아요. 부처님이 가죽 속에 모두, 이 원안에 전체가 들어 있다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풀포기 하나 빼놓지 않고 같이 다 들어서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이 나 이외에 따로 있는 줄 알고 '나 좀 잘되게 해 주시오. 우리 아들 좀 잘되게 해 주시오.' 칠성한테 가서 빌어야지, 산신한테 가서 빌어야지,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그러다가 보니까 용왕까지 가서 무슨 뭐, 거북이나 미꾸라지나 이런 거…, 이름 써서 갖다가 넣고선 그것도 또 잘해 달라고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귀신 아닌 귀신 짓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 짓을 한다면 여러분이 죽어서도 그 의식이,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서 요다음에 또 나와도 그 습성 그대로 가질 겁니다. 그러니 그 습을 떼지 못해서 또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또 고생을 할 테죠. 사람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털옷을 입을 수도 있고…. 만약에 뱀 허물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인간의 허물을 쓸 수도 있는 거지만, 인간도 얼마나 차원이 천차만별로 많습니까?

살아나가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인은 상인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화가는 화가대로, 또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철학자는 철학자대로 아주 자연히 누가 그거를 가리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장단 맞추고 끼리끼리 그렇게 모두가 정말 그 춤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배추장사를 하더라도 규모 있게, 이 주인공 자기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이 몸뚱이는 참자기의 시봉자밖엔 안 돼요. 즉 말하자면 시자다, 또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마음이 동하질 않으면 이 자기 마음 주인공이 고집이 세어 가지고요, 한 발자국도 떼어 놓지 않거든요.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거기에 틀리다고 할 때는 아주 그냥 몸이 전혀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게 누구의 심부름꾼이겠습니까? 자기의 자기가 심부름꾼이죠. 나는 관리인이요, 심부름꾼이다. 부지런히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러한 바쁜 세월에서 '그대로 나는 내 주인공의 그 뜻에 의해서 부지런히 뛸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걸 막론해 놓고 해결 못 하는 것도 없고 또 못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으니, 그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 그렇게 진실하게 믿어진다면 나도, 모두가, 모든 일체 생명이 다 같이 호응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없다면 인연이 없는 일이죠. 그러니 내 몸속에 있는 그 생명들도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일체 놓는다면 악업이나 선업이 다 자동적으로 녹아 버리고 바로 그 생명들이 바로 보살로 화해서 여러분의 털구멍으로 들고 나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간다 이겁니다, 오히려 나쁘게 하기 이전에.

> 스스로 정말이지 지혜로운 마음과
> 우주를 다 집어삼켜도
>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는
> 그러한 자유인이 되신다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깥으로 끄달리지 말고 그 주인공을 진실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저 죽은 걸 보는 것도 주인공 때문이요, 남한테 따귀를 맞는 것도 주인공 자기 탓입니다. 자기가 눈에 보이니까 맞은 거지, 눈에 안 보이면 맞을 리가 있나요? 자기 탓이지. 나는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이 때렸느냐고 하지 마시라 이거죠. 자기가 있기 때문에 맞은 거니까. 그러니 맞은 것도 자기 탓이죠. 어저께 어떠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맞는 겁니다. 꼭 때려야만 맞는 게 아니라 불손한 일을 했으면 불손하게 들어올 거고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깨닫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고 나의 병도, 나를 건강하게 끌고 가는 것도, 가난한 거를 끌고 가는 것도, 모든 게 여기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또는 지혜를 기르면서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그 외의 말은 더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발견을 해야 그때서부터 진짜 공부니까요.

그런데 깨치지 못했다고 해서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해 나가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바로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남의 마음이 편안하고, 한 가정이 화목하고, 내가 밥을 굶어도 허허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고. 나로 인해서 옆에서 운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다가 놓고 가면 거기까지 밝게 불이 들어와서 우는 것을 뚝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겁니다. 번연히 알면서도 못 믿는 사람, 그건 배냇병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험을 해 보고 '아하! 이렇게 신성하고 맛 좋은 것은 난 처음 봤어. 처음 먹어 봤어. 처음 느껴 봤어.' 이러는 거지 남이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나를 보고 "여러분한테 내가 이익을 줍니다." 또 "여러분한테 내가 특별히 무슨 뭐를 잘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아니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스스로 자유인이 돼야 됩니다. 스스로 정말이지 지혜로운 마음과 우주를 다 집어삼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인이 되신다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관이 잘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질문 저는 지장기도를 하던 사람인데요, 인터넷상에서 대행 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주인공에게 관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태양이 이렇게 있다거나 자가발전소가 이렇게 있다거나 그러면 여기 코드가 다 골고루, 관세음보살 코드, 지장보살 코드, 칠성 코드, 약사 코드 전부, 전부 코드가 박혔어요. 쉽게 말해서 산신의 코드도 있고 해신의 코드도 있고, 전부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자기가 용도에 따라서 자기 앞에 닥친 거를 말을 하면 거기에 적합한 보살들이 응신이 돼서 나가죠.

그래서 안과 밖을 조복하라 이런 말이죠. 당신들의 그 한군데다가 모두 몰고 간다면, 그렇게 모두 이 의식들이 따라줘야 조복이 되지 한군데다 놓지 않는다면 조복이 되질 않아요. 이 의식들도 산란하게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수하기가 상당히, 우리들이 몸뚱이를 가지고도 내 몸뚱이 속에 있는 내 그 생명들의 의식들을 단속해서 가지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공부 하니까, 거기 한군데에다가 믿고 놓으니까 다 단속이 되죠. 안과 밖이 다 단속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게, 이 몸뚱이 움죽거리는 것도 전체 다 고놈이 하는 건데 고놈을 왜 못 믿고 그렇게 그래요? 그놈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쉽게 말해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네."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할 때, "스님!" 그렇게 부를 때 "왜 그러느냐?" 그랬는데 아무 말 없을 때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지만 "네가 나를 불렀고 내가 대답했으면 그뿐이지 뭐가 또 있느냐? 네가 있으니까 나를 불렀고 내가 있으니까 대답했지 않느냐." 이런 거와 같죠.

그러니까 댁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말을 하게 된 것도 당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모습을 형성시켜 놓고 거기에 들어 앉아 있는 본래의 자불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불의 주인공을 진짜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아야지 이 세상에 모두 누구를 믿을 데가 있습니까? 자기를 이끌어 가는 자기 주인공을 의심하면 거기에 별거 별거 다 붙어요, 그냥. '정말 그럴까?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리고 급한 일이 생겨도 '주인공 부른다고 뭐, 되나?' 이렇게 하고 이런다면 그냥 영 그거는 소생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사이비교주 능력도 기도로 생길까요?

질문 가끔씩 사람들을 잘못 현혹시키는 사이비 종교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런 교주들은 기도라도 해서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일까요?

답변 기도해서 얻는 능력은 그만큼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심성 천체물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천체물리학이라는 언어도 붙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기까지 맛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주처를 만약에 알았다 합시다. 알았으면 그때서부터 공부거든요. 그런데 알았으면 그걸로 족하게 그냥 모두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 아닌 나와, 부와 자가 둘이 상봉을 했다고 합시다. 상봉을 했으면 하나가 돼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실험을 해야죠.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둘이 아닌 도리를. 이 모든 우주가 전부 전기 가설되듯이 가설이 됐으면 실험을 해야 된단 얘깁니다. 이게 정말 이 실험도 해 보고 저 실험도 해 보고 다 둘이 아니게끔 실험을 해 봐서 내가 완전히 증득을 해서 그 결과를 얻어야만이 되는 거고, 그다음 또 얻어야 하는 것은 실험을 다 해 봤으면 그때 또 한 번 둘이 아니게…, 즉 말하자면 태양을 조절하려면 내가 태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에 태양을 쓰려면, 태양과 내가 둘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나투는 방법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초월해서 돌아가는 그것도 실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실험을 안 하고 그냥 습이, 과거로부터 내가 하고 싶고, 욕심이 있고, 서로 살고 싶고, 예쁜 거 알고, 좋은 거 알고 이러니깐 남이 그 어렵게 돈 번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저 너희가 가져오면 나한테 정성을 다하는 거고 자기는 정성 대가를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숭배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쌍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껌팔이도 시키고 뭣도 시켜서 크게 물건을, 나가 죽어도 '뭐 하나 이렇게 해 놓고 갔다' 이런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 파괴가 돼도 그건 아랑곳없어요. 사람이 자유스럽게 살게 해 주질 않아요. 그저 그냥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종교 믿는 거까지도 고에서 휘달리고, 거기 가면 가는 대로 자기가 싫어도 결혼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래 가지고…. 그건 제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 뜻이지.

그러니깐 모든 사람을 그렇게 현혹시켜서 그렇게 하는 건 제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 하나의 마음의 소견이죠. 하나님이 따로 있나요? 우리 마음을 둥글리면 하나님이지. 그래 "임이시여, 임이시여! 당신의 그 소식을 전달하니 당신은 내 소식을 전달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당신 오기를 기다린다." 하는 그런 시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생각을 한다면 어찌 그럭할 수 있습니까. 집은 짓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삶을 좀 아리땁고 충분히 자유스럽게 살게 해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불쌍히 생각해야지, 공장을 짓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네들을 풍족하게 해 주나요? 그러나 나는, 틀리다 좋다 언짢다 이러진 않아요.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현불 논단

악플에 대처하는 자세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일간지에 쓴 부부상담 칼럼에
"스님이 결혼 상담이냐" 악플
설리 자살 사건에 다시 떠올라

반사회성 · 인지공감 강한 악플러
타인 괴로움, 자기 영향력 착각
두 번째 악플 화살 맞지 않아야

감정 · 생각은 내가 아님을 인식
부정적 감정 인지하고 다스려야

일간지에 칼럼을 연재한 적이 있다. 한 번은 부부상담에 관한 관계치료사로서의 경험을 적었다. 주말 판이라 독자들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인터넷 판에 실린 글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내용이 "스님이 무슨 결혼 상담이냐"는 등의 부정적인 댓글이 주를 이루었다. 설왕설래는 며칠을 두고 계속되었고 처음 경험한 격한 악명의 독자들 반응에 놀라 며칠 동안 가슴앓이를 한 기억이 있다.

얼마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설리는 세상에 큰 화두를 던졌다. 무자비한 악플 테러와 이를 방기한 사회적 무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악플은 인신공격형 · 낚시형 · 광고형 · 장난형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익명이란 그늘에 숨어 개인적인 스트레스 해소나 연예인 · 주변인에 대한 감정 표출의 차원, 또는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악플을 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언론의 자극적 보도가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악플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악플은 특수한 행동이 아니며 모든 이가 잠재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회심리학적 관점과 특정한 성격 장애나 병리적인 심리 역동을 가진 이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의 한 가지라는 정신병리학적 관점이 있다.

특히 정신병리적 특성의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악플러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월등한 점수를 보인 두 가지 부분이다. 그것은 '반사회성 성격' 영역과 '인지공감능력' 영역이다.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반사회적 성향에 타인의 고통은 알지만 느끼지 못하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더해지면, 피해자들이 받을 고통을 예상하고 더 효과적으로 상처를 입힌다. 때린 곳을 집요하게 더 때려서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잡아함경〉에서 "사물을 대하면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어리석은 범부의 속성이라 진단하고, 그들은 "그것에 매달려 원망하기도 하고 애착하기도 한다"고 그들의 행동 경향을 언급하고 있다. 악플러의 공격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식에 대해 부처님은 상윳따니까야 〈화살(살라)경〉을 통해 사람이 "화살을 맞을 수는 있지만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아야 한다"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악플러에 의해 첫 번째 화살에 맞았을 때 쓸 수 있는 명상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마음에 일어난 부정적 감정을 인지하고 손을 꼭 쥐고 이렇게 외친다. "멈춰!" 이어서 손가락을 하나씩 펴면서, "하나, 둘, 셋"이라고 숫자를 센다. 호흡을 하면서 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고 나서 다음 문장을 따라한다. "감정은 감정일 뿐 내가 아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내가 아니다."

악플러는 괴로움을 증폭시키는 사람들의 아픔을 먹고 자라는 특성이 있다. 바로 '자가 증폭 장치'인 '에고(Ego)'를 떼어내는 순간,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지혜로운 이의 삶을 살게 된다.

악플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구업(口業)'이다. SNS에서 이뤄지는 거짓말, 이간질, 욕설과 비방은 구업이기도 하지만 바도 신 · 의업과도 연결된다. 악플은 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 행동 모두에 걸쳐서 악업을 짓는 행위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어딘가에서 악플을 달고 있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 올린 악플 하나가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옭아매는 악업의 사슬이 된다는 점을 알길 바란다. 어렵다면 방금 악플을 소리내어 읽어보라. 얼굴이 붉어질 것이다. 더불어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복덕을 짓는 구도인 점도 함께 인식하길 바란다.



특별기고

'공존', 바른 장례문화 가는 길

권명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

스님들이 열반하면 봉행되는 다비 의식은 불교만의 장례문화로, 화장(火葬)을 대표하는 장례의식이기도 하다. 이 같은 불교가 전한 화장은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년 전 20%를 조금 넘었던 화장률은 2018년 기준 86.8%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화장을 거부감 없이 수용했던 불자들이 변화의 주요 변수였음은 분명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불교신자들은 타종교 신자들보다 자연장과 산골 등 친자연적 장례문화에 대해서도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 고령화 국가인 우리나라는 2043년에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자 비율)가 현재의 19.7%에서 63.0%로 높아지고, 연간 사망자 수도 30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어나리라 예상된다. 장례를 치르고 묘역을 관리할 후손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로서 개발 가능한 토지가 극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묘지가 약 1500만기로 서울시 인구보다 많고, 면적도 서울의 1.2배에 달할 만큼 묘지의 국토 잠식과 자연훼손도 큰 문제다. 지방의 어떤 면은 거주인구보다 묘지가 3.84배나 많다.

이러한 후손 부담 및 자연훼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08년부터는

불교 다비의식, 전통 화장 문화
한국 장례문화 개선에 큰 역할
국토 64% 산지, 토지 부족 현상
사람 · 자연 '공존'하는 장례 필요

잔디장, 수목장, 화초장 등 자연장을 권장하고, 58개소의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여 국민의 자연장 선호율이 45%까지 상승했으며 이용률도 25% 수준에 이르렀다.

화장 및 자연장 이용이 대세가 됨에 따라 정부는 체계적인 대국민 지원을 위하여 2013년에 한국장례문화진흥원(보건복지부 장사지원센터)을 설립하고 화장 · 자연장 확대 및 장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장사상담 △장사정책 및 콘텐츠 개발 △장사시설 종사인력 교육 △친자연적 장례문화 홍보 및 지역순회 설명회 △국가재난 사망자 장례지원 등을 통해 구태의연한 장례문화와 공급자의 상술 속에 방치되어 오던 장례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편리한 것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불교가 공존과 화합의 종교인 것처럼, 바람직한 장례문화도 '공존'에 답이 있다. 삶과 죽음의 공존, 사람과 자연의 공존, 그리고 모든 계층과 세대의 공존을 위한 장례문화 개선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불교와 장사정책 당국은 장례문화 개선과 취약계층 장례지원 등 장사정책을 노인복지정책의 중심부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社說

불교 유튜버 지원기금 조성해야

뉴미디어 시대다. 새로운 형태의 불교 포교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확대를 위해 진흥기금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10월 24일 개최한 포교종책연찬회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유권준 BBS불교방송 뉴미디어 팀장의 뉴미디어 전략과 과제. 유 팀장의 분석에 따르면 불교계 상위 30개 채널의 총 구독자 수는 187만여명에 불과하다. 물론 3대 종교 중 가장 앞서 있지만, 1~2위를 차지한 법륜 스님의 채널을 빼고나면 내실은 긍정적이지 않다. 법륜 스님 채널 외 총 구독자는 77만명으로 최근에 이른바 잘 나간다는 유튜버들의 1/3에 불과하다. 유튜브는 100만 구독자시 연 23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륜 스님 외 전체 콘텐츠가 77만 구독이니 5000명의 수익발생 기본 수치를 제하면 20억원이 채 안된다는 풀이가 나온다. 일반 기업에서 1명당 1억 5000만원은 벌어야 지속가능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15명 남짓 정도가 먹고 살만한 시장이란 것이다. 이런 협소한 시장은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의 진입을 저해한다. 아무리 신심이 높아 유튜브에서 포교를 하고 싶어도 먹고 살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교 뉴미디어 생태계가 크기까지 일종의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 범 종단 차원의 불교 콘텐츠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각종 공모 등을 지속 개최해야 한다.

또한 청년 유튜버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편집 지원을 위한 공동센터 구성 등도 필요하다. 유튜브를 축으로 한 뉴미디어 도래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다. 시대에 뒤쳐진 불교는 미래가 없다.

한국불교, '공동체 정신' 회복을

고성 옥천사 청련암 만일계가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고 한다. 이를 기념하는 학술세미나가 10월 26일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옥천사 청련암 만일계와 옥천사 사찰계를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청련암 만일계는 당대 강백이었던 서응 스님이 발원해 창립했으며, 하루 4번 염불을 하고 봄 가을로 불공을 올릴 것을 독려했다. 이 같은 청련암 만일계는 6.25 한국전쟁 이후인 1957년까지 이어지며 염불수행을 이어갔다.

1957년 이후 잠시 단절됐던 만일계는 지난 9월 2일 입적한 故승욱 스님에 의해 다시 이어졌다. 1996년 승욱 스님은 만일계를 '정토만일봉사회'로 새롭게 조직됐고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만일봉사회는 염불수행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와 아동복지 등의 사업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사찰계'와 관련된 연구도 눈길을 끌었다. 사찰계는 조선 후기 억불의 시대에 경제적 자구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 옥천사에서도 11건의 사찰계가 1744년부터 1966년까지 활동했다. 이를 통해 옥천사는 어려운 사찰 재정을 극복했다. 서울과 일본으로 유학승을 보냈으며, 부산대 설립기금도 낼 정도였다고 한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사찰계들은 어려움을 기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였다는 점이다. 함께 정진하며 바른 신앙활동을 이루고, 나아가 사찰을 보호할 수 있는 재정도 만들어졌다.

한국불교가 위기라고 한다. 출가자도 신도도 줄어들고 있다. 위기의 시대, 한국불교에는 다양한 '사찰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대승보살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작지만 강한 원력의 공동체인 '사찰계'가 현대적 모습으로 화현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休 Mandala

‘마음쉼터를 가다’

⑦ 천안 호두마을 위빠사나 수행센터

항상 오롯이 깨어 있음이 바로 ‘행복’

천안=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명상’ 이라하면 조용한 곳에 앉아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진정한 명상은 우리가 숨쉬는 바로 이 순간 하나 하나 속에서 알아차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매 순간을 알아차림으로 계셨지만 생활 속의 우리들은 작은 순간이라도 잠시나마 알아차림의 과정에 들도록 하는 것이 명상의 역할이다.

서구 사회에서 이러한 생활 속 알아차림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곳이 있다. 바로 프랑스 보르도에 틱낫한 스님이 세운 수행공동체 플럼빌리지다. 세상의 번잡한 물결에서 벗어나 삶의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순간의 알아차림을 확장시킨다.

한국에서도 플럼빌리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천안 광덕리에 위치한 명상공동체 호두마을이다. 호두마을은 성숙된 후에도 수많은 과정을 거쳐 호두 알맹이를 내놓는 호두와 같다는 의미에서 붙은 수행공동체 마을 이름이다. 성숙된 가을에 따서 물에 오래 담가두어 외피를 썩히면 딱딱한 호두 피가 나온다. 이를 깨면 나오는 호두 알맹이처럼 스스로 내면의 진리를 깨우치라는 의미다.

차제가 있는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이곳은 평화롭다. 매 분기별 집중수행 때를 제외하고는 개별수행자들이 조용히 수행에 임하고 있다. 위빠사나 수행이 불교수행이지만 명상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상관없이 수행에 동참할 수 있다.

호두마을 가는 길서 명상에 잠기다

호두마을은 마을로 가는 길 부터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경부고속도로를 지나 논산천안고속도로를 달려 남풍세IC를 나온다. 교통의 중심지인 천안까지는 쉽게 가지만 이후의 길은 구불구불난 시골길이다.

광덕산을 바라보고 광덕리 초입에 들어서면 딱 ‘아 만만치 않구나’ 를 느끼게 된다. 산등성이를 끼고 국도를 30분 가량 달리면 작은 마을이 나온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길 사이로 역시 20분 가량을 달리면 호두마을이 나온다. 혹시 차량 바퀴가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주변에 핀 들꽃을 보지 못한다. 사색에 잠기기 좋은 길이기에 차 없이 가는 것을 권하고 싶다.

좁은 길 사이 사이에 있는 호두마을 이정표는 마치 어려서 보물찾기를 하듯 살피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찾는 이들의 마음을 변하게 한다. 즐거운 마음에 잠시 주변을 돌아보면 조금씩 물들어 가는 가을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주변의 풍경은 번잡하게 일어났던 마음의 티끌을 조금 가라앉힌다. 광덕산을 바라보고 올라가다 보면 호두마을이라는 명패와 함께 작은 벽돌집들이 길손을 반긴다. 차가 미처 가지 못하는 보행로에는 호두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B2면에 계속

호두마을 대수행홀에서 경행하는 수행자의 모습.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노소도게로 가는 길 〈上〉

B4 책세상
마크 엡스타인 〈진료실에서 만난 붓다〉

B5 문화
이송자의 한지 지화전

B6 학술
조선 후기 불상 발원문 망라하다

천안 호두마을 가는길

- 천안-논산 고속도로 남천안IC에서 대전 광덕사 방향으로 15km
-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IC에서 39번 도로 따라 아산 지나 629번 도로 이용
- 천안에서 버스 이용시 천안터미널, 천안역 동부광장 정류장서 시내버스 600번, 601번, 602번 이용.

호두마을 수행 일정

-매주 화요일 2시~4시 아비담마 강의
-격주 7일 집중수행
-연중 한달 집중수행(여름, 겨울)
-결제 음력 6월 보름~9월 보름
-음력 4월 보름 위카사의 보름 시 부처님의날 행사 진행
-해제 후 한달 내 까티나 보시
-상시 자율 수행





천안 호두마을 전경. 광덕산 자락에 자리한 숙소 등은 조용히 수행하기에 좋은 공간이다.

한국의 플럼빌리지, 열린 수행 지향

'호두마을 위빠사나 수행센터'

B1면에서 계속

'알아차림' 위한 수행강조
곳곳에 '묵언' 표지 눈길
개인 · 집중 수행 병행
매일 신청자 인터뷰 진행
"위빠사나, 불교 넘은 수행"

몸과 정신 함께 살피는 위빠사나 수행

호두마을은 마을 이름이 아니라 위빠사나 명상센터의 명칭이다. 호두마을이 위치한 곳은 예로부터 호두골이라 불려왔다고 한다. 예전에는 만복사라는 큰 사찰이 있어 많은 수행자가 찾았던 곳이다.

이 곳은 1992년부터 재가불자들의 서원으로 위빠사나 수행처로 설립됐으며, 2002년 공익법인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1만6500㎡가량의 대지 위에 수행공간인 대법당과 소법당, 수행자들의 숙소와 공양간, 4채의 황토방, 연못 등이 들어선 호두마을은 한눈에 규모와 정성을 갖춘 수행도량임을 알 수 있다.

호두마을 입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언제나 마음챙김, 언제나 자비행' 이란 표지석이다. 수행자들이 스스로의 몸과 마음에 대해 항상 깨어 있는 사띠를 이어가는데 집중하라는 메시지다.

이런 수행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은 시시 때때로 찾는다. 집중수행이 진행될 때 외에도 짧게는 하루, 길게는 서너달 씩 개인 수행을 위해 머무른다. 1일 생활비는 3만원 수준으로 평상시 자율 수행 때와 집중 수행 때 모두 비용은 동일하다. 호두마을 한켠에 있는 텃밭에서 밭을 가꾸는 이들부터 포행을 하는 이들까지 오로지 머무르는 동안은 수행에 전념한다. 수행이란 것이 앉아서 하는 것 뿐만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모든 행동이 알아차림으로 수행이 시작된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행 이어져

호두마을에선 기본적으로 묵언이 방침이다. 온전히 생각과 느낌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말 속에서 호흡으로 놓치는 것을 방지하고 매순간 자신을 살피게 한다. 먼저 매일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수행자들은 수행일과를 시작한다. 새벽 5시에는 예불이 있고 6시에 공양 후 행선과 좌선이 이어진다. 오후 2시까지는 이 같은 수행이 이어지며 2시 오후 법문과 함께 저녁 10시까지 정진이 계속된다.

저녁식사는 '오후불식' 의 원칙에 따라 생략되고 음료만 제공되지만 허기를 참기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간단히 먹을 거리를 준비해 각자의 방에서 먹는 것은 허용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저녁 9시 이후에 진행되는 와선이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 누워 수행하는데 이는 어떤 수행을 따로 한다는 의미보다 잠들기 위해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정신적으로 '알아차림' 을 위해 깨이었겠다는 다짐의 시간이다.

물론 이 같은 수행도 완전히 강제된 것은 아니다. 여름과 겨울 한달 집중 수행과 안거 결제기간을 제외하면 수행일과는 일종의 권장사항이다. 스스로의 몸 상태와 마음의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호두마을을 찾은 날에는 6~7명의 수행자들이 자유롭게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행도 일주일 단위로 스승이 바뀐다. 선원장인 우 소다나 사야도를 비롯해 부원장 일창 담마간다 등이 지도를 맡고 있다.

매일 오후 2시 법문 이후에는 수행과정에서 막힌 부분에 대해 답을 구하는 인터뷰도 진행된다. 이 시간은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고 위빠사나를 전혀 모르는 이도 가르침을 통해 동참할 수 있다.

'자유'를 느끼게 하는 적막함

호두마을에 들어서서 잠시 좌선을 하고 일어나자 곧 점심 공양시간이 됐다. 호두마을은 공양 시간에도 묵언을 강조했다. 음식을 접시에 담으며 이 음식에 대한 마음의 쏠림에 대해 잠시 집중했다. 식당 한 곳에 쓰여진 '공양할 때도 마음챙김, 묵언' 이라는 문구는 음식공양이 마음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부원장인 일창 담마간다 스님은 "위빠사나 수행에서 위는 특별하게, 다양하게 관찰하는 것이란 뜻이기에 어떤 상황이라고 해서 수행, 마음챙김이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왜 그쳐서는 안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했다. 관찰하지 않으면 항상 행복하다고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으로 인해 고통이 나기 때문이었다.

음식을 먹는 동안 가만히 나의 상태를 관찰해 보았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 입안에 넣는 순간 음식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솟아났고, 이를 씹으며 맛을 느꼈다. 다시 삼키고 조금 있으니 다른 음식을 갈구하는 마음이 솟아남을 느꼈다. 음식을 하나 하나 먹는데도 마음 상태가 변화무쌍함에서 평소에 생각하는 포만감 등에 대한 관념의 차이를 느끼게 됐다. 이어 계속 마음을 집중하자 먹는 것에 대한 생각과 마음챙김에 대한 것이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공양 후 건물을 둘러보자 포행길을 나와 걷는 수행자들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조용히 걷는 이들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오후의 해가 저물어 갔다. 오후가 되자 호두마을에서는 적막감 만이 감돌았다. 조금씩 소리를 내는 풀벌레와 들새들의 소리 뿐이었다. 곳곳에 걸려 있는 묵언은 마음에 또 다른 자유를 느끼게 했다.

위빠사나 수행 보편화 이끌까

호두마을 설립자인 손병옥 고문은 호두마을을 세우며 "위빠사나 수행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불교란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 수행 그 자체가 하나의 행복이라는 것이었다. 오늘날 종교로서가 아닌 명상을 하는 것과 일견 맥이 닿아있다.

그래서 호두마을에는 위빠사나 수행 뿐만 아니라 명상을 하기 위해 찾는 이들도 많았다. 기은경 호두마을 사무장은 "초창기에는 가톨릭 신부를 비롯해 이웃종교인들의 방문도 많았다. 현재는 명상을 위해서 찾는 수행자들도 많다. 이들에게 종교란 굴레를 벗고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인 수행처 또한 1인 1실을 원칙으로 개별화 장실 등이 구비돼 대부분의 명상 수행처에서 진행하는 형식을 띠고 있었다. 마치 무문관처럼 독수행을 할 수도, 수행홀에서 도반들과 함께 수행을 할 수도 있다.

대수행홀에서는 삼삼오오 수행자들이 좌선과 경행을 함께 병행하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끝과 호흡에 집중하는 위빠사나 수행을 하는 모습이 경건해 보였다.

취재 후 뒤돌아 나오는 길, 호두마을에서 다시 한번 수행할 기회가 있기를 원했다.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는 정진 열기가 가득한 이 곳을 떠나며 아쉬움이 가득했다.

노보살 건넨 보시… 순례 진행 원동력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㉛ 노소도게로 가는 길〈上〉

여느 때와는 다르게 조금 불편한 밤을 보냈다. 당초에 잠자리로 삼았던 대사당이 꽤나 불편해서 야밤에 잠자리를 옮긴 탓이다. 오후 늦게 순례자들에게 들은 정보를 따라 대사당을 관리하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서 열쇠를 받았다. 식당 사장님의 알려준 길을 따라 도착한 대사당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중턱에 위치해 있었다.

듣기로는 대사당 뒤로 넓은 방이 연결 되어 있고, 그곳에 순례자들이 잘 수 있도록 이부자리가 있으며 대여섯 사람은 너끈히 잘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도착한 대사당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편안한 장소로는 느껴지지 않았다.

습하고 어두컴컴한 대사당은 꽤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듯 퀴퀴한 냄새가 가득했고, 불단에는 번들거리는 페인트로 칠을 한 코보대사상이 꽤 흉흉한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일단 전기를 켜려고 하는데 아무리 스위치를 올렸다 내려도 불이 들어오질 않았다. 이상하다 싶어서 밖의 전기 계량기를 보는데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 가고 있었다.

비상용 손전등을 켜고 대사당 뒤로 이어져있다는 방으로 들어가 보려는데 복도가 움푹 파여 있고, 마룻바닥도 흔들거리는 게 뭔가 불안했다. 일단 환기를 할 겸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잠시 마루에 있으려니 식당 사장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다.

"순례자님, 어떤가요? 한 일주일간 아무도 이곳에서 묵질 않아서 제대로 살피질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저기 조금 이상한 곳이 있긴 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점이나, 숙소인 방으로 가는 길이 이상한 점 등을 말했더니 사장님이 몇 가지 점검을 해본다. 사장님 말론 여기의 전기와 밖의 가로등의 전원이 같은데 대사당만 불이 안 들어오는 걸 보니 어딘가 선이 나가서 누전이 되는 것 같단다.

"아차! 저 복도의 마루가 빠져서 방을 못 쓴다는 말을 제가 깜빡했군요."

대사당을 지은 지 오래되어 이곳저곳 손볼 곳이 많은데, 지난 장마로 결국 연결 복도 바닥과 마루 여기저기가 빠져 버렸단다. 결국 사장님이 알려준 잘 수 있는 공간은 불단 앞의 마루 정도였다. 열쇠는 내일 아침 식당 우체통에 넣어달라고 부탁받았다.

사장님이 떠나가고 순례자들이 남긴 방명록을 훑어본다. 아니나 다를까 다들 흉흉한 분위기에 대해서 말들을 남겨뒀다. 심지어 마루사이에서 지네가 나왔으니 조심하라는 충고도 있었다. 이 곳에 묵어도 될까하고 고민하는 사이 어느덧 해가 져버렸다.

촛불에 의지해 저녁예불을 모시고 누워 자려는데 천정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쥐인가 했는데, 쥐라고 하기엔 무게감이 있는 소리가 났다. 무엇인가 산짐승이 들어온 듯, 한 마리도 아닌 모양이었다. 곧 잠잠해 지겠거니 하곤 잠을 청하고 있는데 쿵하곤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잠이 달아났다. 벌떡 일어나서 근처의 다른 잘만한 곳이 있나 하고 생각해보니 마을 안에 있는 휴게소가 생각났다. 바로 짐을 다시 싸서 대사당을 나와 버렸다. 대사당 열쇠는 휴게소로 가는 길에 식당 우체통에 일찌감치 넣어두었다.

마을 안의 휴게소에는 이미 다른 순례자 두 명이 잠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낮에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잘만한 곳 중에 젖지 않은 곳이 드물었다. 내가 서성이는 소리에 눈을 떳는지 한 순례자가 몸을 일으켜 화장실 쪽으로 가보라고 한다.

습하고 어두운 대사당 나와서
장애인 화장실서 잠을 청했다
선잠으로 피곤한 몸으로 순례
마당 한켠 내준 노보살에 감동
오셋타이 받고 그 힘으로 걸어

"화장실은 밤새 불이 켜져 있어서 눈이 부실 수 도 있어요. 우린 밝으면 잠이 안와서 여기로 자릴 잡았는데, 괜찮으면 가 봐요."

어둠 속에 알 수 없는 산짐승을 경계하며 잘 바에야 불빛에 잠을 설치는 게 낫겠다 싶어 화장실로 향한다. 화장실 통로에 자리를 깔까 하다가 아스팔트 바닥에서 오는 냉기와 산속의 한기를 버틸 재간이 없어 결국 장애인용 화장실로 들어갔다.

사실 노숙 순례자들에게 장애인용 화장실은 가장 매력적인 노숙 장소중 하나다. 수도, 화장실, 전기, 안전성까지 어느 하나 뺄 것 없는 장소지만 꼭 필요한 분들이 급하게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에 가능한 지양해야하는 장소다. 하지만 오늘은 날이 날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잠자리를 꾸렸다. 다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고 잠에 들었다.

그렇게 선잠을 자고 일어나니 몸이 영 말이 아니었다. 아침을 먹자니 입맛도 없고 뻔한 미숫가루가 조금 물리기도 해서 일단 걷다가 허기지면 먹을 요량으로 그냥 걷기로 한다. 부스스 몸을 일으켜 배낭을 짊어 멘다. 다른 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건 아마 기분 탓이겠거니 하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날씨가 맑다는 것이다.

그렇게 5km 가량을 걸었을까, 슬슬 배가 고파서 못 걷겠다 싶어서 어딘가 앉아서 미숫가루를 먹으려 하는데 앉을 만한 곳이 없었다. 아무래도 어제 종일 비가 온 탓이었다. 일단 갈 때까지 가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그냥 길 바닥에서 먹을 요량으로 나아간다. 어느 집 앞을 지나는데 마침 화단을 돌보고 계시던 할머니가 인사를 하신다.

"순례자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셋타이 할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가셔서는 캔커피를 하나 가져왔다.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잠깐 앉아 쉴 수 있을지 여쭈어 보고 그 집 계단참에 배낭을 풀고 나서 잠시 앉았다.

"순례자님 보니까 노숙하시는 분 같은데, 아침을 드셨나요?"

"아니요, 이제 뭐라도 좀 먹을까 하고 있습니다."

"먹을 걸 가지고 계세요?"

"네, 미숫가루가 있어서요. 이제 간단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어머나! 그걸로 밥이 되나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빵을 가져오셨다. 할머니는 조금만 빨리 왔어도 밥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지만 시장이 반찬인 나에겐 그 어떤 식사보다도 훌륭한 아침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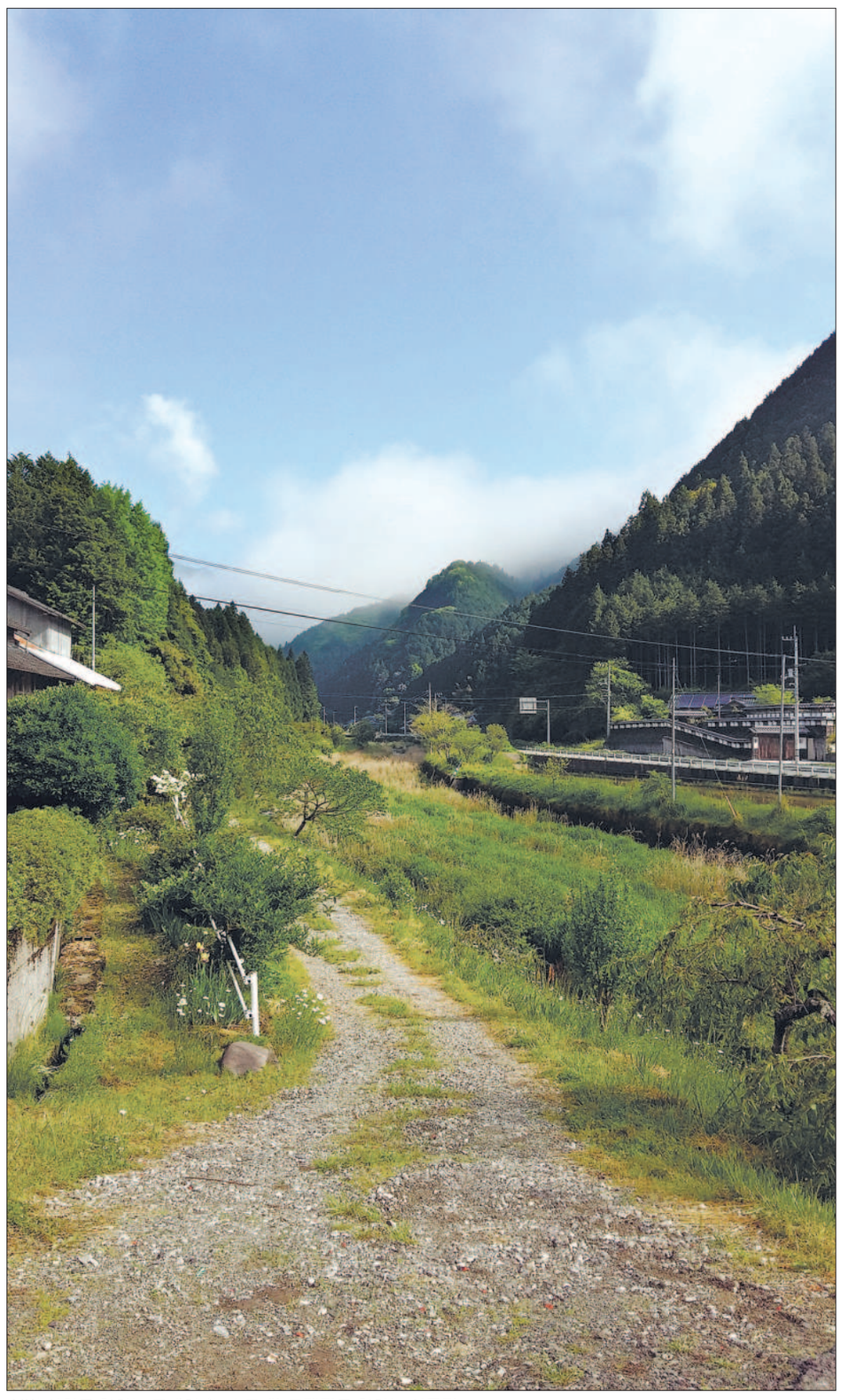
훌륭한 오셋타이 덕에 아침을 해결하고, 다시 길을 걸어간다. 44번 다이호지로 넘어가는 고갯길은 두 갈래인데 조금 가팔라도 거리가 짧은 산 고개를 넘어 가기로 한다. 노소도게(農祖峠)고개를 넘어가면 곧 44번 사찰과 이어지는 국도와 만나고, 국도를 조금 올라가면 곧 사찰에 도착한다.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점심 전에 도착할 듯하다. 이리 되면 45번 사찰까지도 넉넉하게 노려 볼 수 있다.

45번 사찰이 산속 깊은 곳에 있는데다가, 46번으로 가기 위해선 들어간 길을 다시 밟고 나와야 한다. 왕복길이 거의 16km나 되다 보니 심적으로 부담이 꽤 크다. 그래도 44번에 빨리 도착 할 테니 45번까지 다녀오면 딱 하루 길이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아 본다.

노소도게는 4km 남짓한 고갯길로 포장이 되어 있진 않지만, 농가에서 길을 정리해 두어서 트럭한대는 너끈히 다닐 수 있게 편한 길이다. 다만 산 고개를 넘어 가는 길이라 조금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국도를 타고 계속해서 걸어가다 현도로 빠지고, 다시 조금 거슬러 올라가다 산길로 접어든다. 다행히 알기 쉽게 이정표와 순례길 안내가 여기 저기 붙어 있어 염려는 없어 보였다.

노소도게길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자 거친 자갈길이 나타났다. 그래도 '이정도 길이라면 가팔라도 문제없지' 하곤 조금 부주의하게 걸은 탓일까? 시코쿠 순례 중 가장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자유기고가〉



44번 사찰로 향하는 고개인 '노소도게' 고갯길로 향하는 시골길.



음산한 대사당을 피해 피신한 공중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노숙은 가장 마지막 선택이다.



아침밥으로 오셋타이를 받은 캔커피와 빵. 현지인들의 보시는 순례에 원동력이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3~10/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천태소지관	천태지자/윤현로	운주사	6	삶이 내게 묻는 것들	보현스님	쌤앤파커스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7	천강에서 달을 보다 (25인의 선지식 이야기)	채문기	모과나무
3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노승대	불광출판사	8	원빈스님의 천수경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솟는)	원빈스님	이층버스
4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9	간화선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간화심결)	수불스님	김영사
5	죽을만큼 힘들 때 읽는 책	장웅연	담앤북스	10	숨만 잘 쉬어도 병원에 안 간다	패트릭 맥커운/조윤경	불광출판사

스스로 자신 치유하는 여덟 가지 태도는?



진료실에서 만난 붓다
마크 엡스타인 지음/김성환 옮김
한문화 펴냄/1만 45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프로이트 진단, 붓다 치유 풀어낸 팔정도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정신과 전문의의 심리 치료에 불교의 팔정도(八正道)를 접목했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팔정도는 불교 수행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료실을 찾는 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치유하고 다스리기 위해 가져야 하는 주요한 태도들'에 팔정도서 빌려온 여덟 개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자신과 사물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힘인 '올바른 견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내면을 관찰함으로써 드러나는 '올바른 의도', 주어진 순간에 최선의 행동을 찾는 '올바른 행동', 자신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올바른 말', 삶의 불확실성을 즐기는 방식으로서의 '올바른 집중' 등으로 풀어내 불교 수행자의 덕목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기 치유의 태도로 제시한다.

프로이트 심리학으로 대표되는 서양 정신의학을 공부한 정신과 의사이자 동양의 정신 수행법인 불교 명상을 오랫동안 지속해 온 저자는 불교와 심리 치료의 공통점을 매개 삼아 심리 치료에 팔정도 가르침을 적용시킨다. 붓다와 프로이트가 공통으로 중시하는 '현실 직시', 즉 두려움 없이 자신의 내면세계와 대면함으로써 무의식 깊숙이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고 스스로 자신을 치유하고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데에까지 나아가게 해 준다.

명상, 삶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훈련

동서양을 막론하고 명상은 현실 회피, 스트레스 해소, 자신감 강화 등 경쟁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자아 향상의 도구로 사용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상의 도구화는 곧 한계에 부딪힌다.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이트와 붓다는 '싫은 것을 밀쳐 내지도, 좋은 것을 움켜쥐지도 않은 채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전부 수용하는 명상적 태도'와, '휩쓸리지도 거부하지도 않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인 자기 관찰의 지점서 만난다. 자아의 호불호와 제멋대로인 해석에 자신을 내맡기는 습관을 제한하고 자아의 영향력을 누그러뜨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명상의 힘인 것이다. 결국 명상을 통해 문제를 회피하거나 통제하려 들지 않고 자기 내면의 힘을 믿고 삶이 주는 불확실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잠재된 치유 능력 일깨워라

저자는 오랜 임상 경험을 쌓은 정신과 의사답게 불교적 관점을 심리 치료의 상황 속에 녹여 내면서 명상과 심리 치료의 관계를 설명한다. '치료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양 가장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드러내 보일 기회를 갖는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 효과를 가져다주는 기법의 핵심에는 바로 이 태도가 놓여 있다' 고 말하며, 팔정도의 여덟 가지 태도로 구성된 각 장서 실제 사례를 통해 환자를 대하는 치료사의 관심과 자신의 내면을 마주한 명상가의 관심이 사실상 같은 것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심리적 상처 부위에 '거울 같은 관심'을 비추는 과정이란 점에서 심리 치료의 본성이 명상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려준다.

명상은 혼자 하는 심리 치료, 심리 치료는 둘이 하는 명상인 셈이다. 결국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치유 도구를 독자들의 손에 쥐여 주고, 자신의 잠재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치유하는 의사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풍부한 임상 사례 통해 진단한 내면

이 책은 자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담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하는 상담가나 심리치료사들에게도 실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서 저자는 자신이 만난 환자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해 나가는지를 팔정도의 여덟 가지 태도와 연결시켜 설명한 동시에 그 사례를 통해 저자 역시 의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자기 내면의 모습을 비춰보고, 다른 심리치료사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 속에 깊이 묻혀 있는 트라우마를 끄집어내 들여다보는 과정까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치료사 역시 완벽한 인간은 아니며 내담자들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인식하고 깊은 명상과 성찰을 통해 스스로 치유해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특히 치료자에게는 '깊이 개입하지도 멀리서 방관하지도 않는' 균등한 관심의 분배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제어하고 환자 스스로 답을 찾고 치유해가는 과정을 돕도록 하는 치유자의 '올바른 노력'을 강조한다. 적용하는 현장이 다를 뿐 자신을 치유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내담자나 치료자나 똑같다.

인식론과 실천론 기초한 〈섭대승론〉 현대적 해석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알까?
무착 스님 지음/정화 풀어씀
북드라망 펴냄/1만 8천원

이 책은 대승불교 초기 대표적 경전으로 대승불교의 인식론과 실천론의 기반을 놓았다고 평가받는 〈섭대승론〉을 오늘날 독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풀어쓴 책이다. 〈대승기신론〉과 〈육조단경〉 등을 우리말로 옮기고, 〈중론〉 〈금강경〉 〈반야심경〉 등에 대한 강의를 책으로 펴내는 등, 불교철학의 대중적 수용을 위해 힘쓰는 정화 스님은 이 책에서 아뢰야식,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원성실성 등 난해한 불교유식론의 핵심 개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또한 독자들로 하여금 부처님이 설하신 연기설을 바탕으로 생명계 전체가 하나의 수레이자 큰 수레(大乘)임을 깨닫고 자리이타(自利利他: 자신과 남을 모두 이롭게 함)의 보살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무착 스님은 인도 북서부 간다라국의 프라쟈프라(현재 파키스탄 페자르)서 태어나(생몰연대는 대략 AD390~480년 경으로 추정), 설일체유부(정신계와 물질계를 구성하는 '75가지의 요소(法)'가 실재한다고 주장한 불교의 부파)로 출가했다. 출가 이후 교파 가르침을 학습하고 선정수행에 매진한 결과 욕망을 여읜 선정의식(삼매)을 체화했으나, 〈반야경〉서 주창한 공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절망감에 싸인 날이 많았다고 한다. 그 시기에 아라한과를 성취한 빈두루 스님을 만나 그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한 결과 심신탈락의 경지, 곧 자아의식이 사라진 해탈의 경지를 이루면서 자리의 바탕이 되는 자수용지(自受用智)를 성취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미진한 구석이 있는 듯하여 더욱 가열차게 선정수행 한 결과 삼매 상태서 미륵보살을 만나 그의 가르침을 배운다. 〈대승기신론〉 등에서는 이 같은 경험을 마음이 만든 사건인 줄 모르고 실재 사건이라 여긴다면, 귀신 장난에 놀아난 것이라 이야기 한다.

삼매 상태서 미륵보살을 자주 만나 그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은 공(空)에서 세계상(有)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세계상(有)이 조건 따라 사라지는(空) 경험을 하게 되면서 공도 공이 아니며 유도 유가 아닌 것을 체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이라는 이름에 해당되는 종이로서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닥나무, 햇빛, 물, 흙, 사람의 노력 등이 더해진 결과 종이라는 이름을 갖는 종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현상으로서의 종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有), 실체로서의 종이는 없다(無)는 것이다.

삼매 체험을 통해 연기, 곧, 유식을 관통하는 지혜를 성취하게 되면서, 곧 자리의 자수용지와 이타(利他)의 타수용지(他受用智)를 성취하게 되면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조직적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섭대승론〉이다. 대승이란 생명계 전체가 하나의 큰 수레와 같다는 것이다. 하나하나의 생명활동이 우주와 생명 역사가 종횡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우연이 필연과 같은 흐름에 개입되면서 필연이 우연으로 변하고 우연이 필연을 낳기도 하면서 생명흐름이 상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및 말과 행동이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면서도 그 속에 생명계의 역사가 들어 있기에, 하나의 생각도 생명계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 자아는 '중첩된 자아' (無 我)이면서 '되어 가는 자아' (無常)라는 것이다. 아집이 부질없는 집착이며 번뇌의 뿌리가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잘못 설정된 자의식과 자존심으로 상처받기에는 자신의 생명 활동이 너무나 존귀하다. 그러므로 대승경론에서는 분별된 자아에 기초해 자신을 보는 인지 습관을 내려놓고, 대승으로서의 자신을 보는 사유를 생각생각으로 이어 가는 지혜수행이 다른 무엇보다 앞서 실천해야 할 삶의 덕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혜수행으로 인식의 토대를 바꾼다는 측면에서는 체득해야 할 경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사유의 내용으로 보면 일상이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사유를 이어 감으로, 지혜수행이 완성된 삶의 덕목을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된다.

김주일 기자

오리고 물들여 피워낸 부처님꽃

이송자의 한지 지화전

서울 불일미술관(법련사)
10월 31일부터 11월 6일



이송자 作, 42수관음상과 목단.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지는 가을꽃의 아쉬움을 달래줄 지화전이 열린다. 40년 가까이 지화를 연구하고 만들어온 이송자 작가는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서울 불일미술관(법련사)에서 '이송자의 한지 지화전'을 개최한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연꽃, 목단, 국화, 동백 등을 소재로 한 30여 점의 지화 작품을 선보인다. 순지에 치자, 자초, 장록, 홍화, 쪽 등 자연염으로 물들이고 꽃대와 잎대를 작업한 꽃들이다. 계절이 아닌 인간 이송자가 피워낸 꽃들이다.

사찰꽃이라고도 불리는 지화는 말 그대로 종이로 만든 꽃이다. 꽃이 귀했던

연꽃, 국화, 동백 등 30여 점
순지에 치자, 자초 등 자연염
"공양 위한 지화 조성은 수행"

시대 선조들의 지혜로 만들어낸 꽃으로 우리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이다. '화만'이라 하여 불전을 꾸미고 불탑를 공양하기 위해 불전의 난간 등에 조화를 만들어 늘어뜨리고, 꽃을 병에 꽂아 불전을 아름답게 장식해 왔다.

염색한 한지로 피워내는 지화는 모든 장엄에 필요한 꽃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지화 자체가 하나의 장엄물이 된지 오래며, 부처님의 장엄물이자 공양물인 꽃을 만드는 일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수행의 하나이기도 하다. 육법공양 중 하나인 꽃은 만행화(萬行花)로서 꽃을 피우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딘다는 뜻에서 수행을 뜻하며, 장엄과 찬탄을 상징한다. 신라와 고려시대 불심이 깊은 대중은 집에 불단을 세우고 작은 병에 지화를 꽂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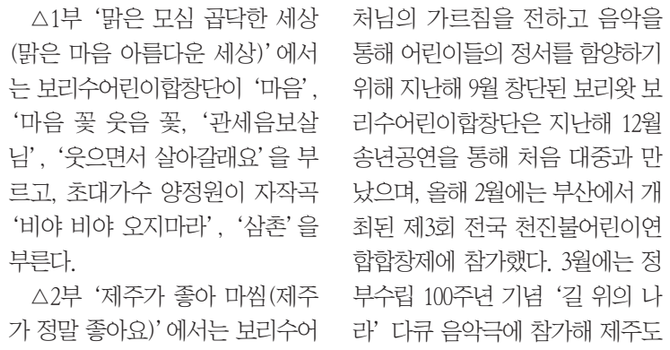
우리나라 불교지화는 삼국시대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전의 헌공화로 시작됐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공양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당시의 유물은 전해진 것이 없으나, 고려시대에 지화를 만드는 승려화장이 있었던 사실과 〈관무량수경〉 내용으로 그린 고려불화 '관경십육관변상도'에 있는 꽃을 재현해 본 결과 지화의 기법으로 만든 꽃을 사용한 도상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그 외 수월관음도, 수덕사벽화, 조선시대 감로탱화, 〈조선고적도보〉에 사진으로 남은 법당 불교지화 장엄 등의 귀중한 사료를 통해 우리 불교전통지화의 양식임을 알 수 있다.

"한참 오래전, 절의 큰일이 있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종이를 오리고 물들이고 그저 열심히 거들었습니다. 꽃을 만들어 내는 꽃일이 그리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들었던 그 꽃일의 시작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일이 되어 이제까지 곁에 붙여 두었습니다."

이 작가는 1980년 안덕암 스님의 지화를 이어받아 서울 조계사 등 전국 각지의 사찰 행사에서 참여해 지화 보급과 전승 그리고 전수의 남다른 불사를 이어왔다. 한지 천염 염색을 기본으로 전통지화를 연구해온 이 작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연등, 지화 전수교육자이며, 중요무형문화재 125호 삼화사 국행수륙재 지화전수교육자이다. 1980년에 지화의 제작기법과 염색사사로 입문해 1991년에는 안성 봉덕사 경은 스님의 기법과 염색을 사사했다. 2001년 조계사에서 전시회를 열었으며, 2002년 중요무형문화재 목조각상 전시 연밭 장엄, 2010년 LA 라크마 주립 박물관 영산재 지화 장엄, 2013~2014 LA한인축제 지화 시연, 201년 영천 은해사 조실 스님 다비식 연화대와 영결식장 장엄 등에 참여했다. 2015년부터 매년 연등회 문화마당에 참여하여 지화 시연과 체험으로 지화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제주 어린이 음성공양 "제주가 좋아 마씸"

제주 보리왓 보리수어린이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



지난해 9월 창단된 제주 보리왓 보리수어린이합창단.

11월 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양정원, 마니주중창단 등 특별출연
찬불가 가곡 민요 등 제주어로 공연

제주 약천사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의 보리수어린이합창단(지도법사 성원)이 11월 2일 오후 4시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보리수 2563 함께하는 합창제 '제주가 좋아 마씸'이라는 제목의 이번 공연은 제주의 지역적 정서를 이웃들과 함께 하고자 보리수어린이합창단을 비롯해 지역가수 양정원, 마니주 중창단 등이 함께 제주어로 음성공양을 펼친다.

△1부 '맑은 모심 곱닥한 세상(맑은 마음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보리수어린이합창단이 '마음', '마음 꽃 웃음 꽃, '관세음보살님', '웃으면서 살아갈래요'을 부르고, 초대가수 양정원이 자작곡 '비야 비야 오지마라', '삼촌'을 부른다.

△2부 '제주가 좋아 마씸(제주가 정말 좋아요)'에서는 보리수어린이합창단이 '좋아 마시', '올레 걷기,' '이추룩 살램마씸', '섬집 물애기(섬집아기)'를 부르고, 이어 마니주 중창단이 특별출연해 '내마음의 부처', '청산은 나를 보고', '제주의 푸른 밤'을 부른다.

△3부 '지꺼진 제주 행복한 어린이(즐거운 제주 행복한 어린이)'에서는 보리수어린이합창단이 '미련한 당나귀', '아이들은', '바람의 빛깔'을 선보인다.

△4부 '고치 모다 들엉(함께 우리 다 함께)'은 공연에 참여한 모든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하는 무대로 '고향의 봄', '느영 나영'에 이어 '제주도의 노래'를 다함께 부른다.

지도법사 성원 스님은 "지난 1년 동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개최하는 첫 연주회에 참석하시어 많은 기쁨을 나누시기 바란다"며 "어린이 불자들의 합창으로 부처님의 세상을 활짝 열어 나아갈 첫 번째 공연에 대중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어린이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음악을 통해 어린이들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창단된 보리왓 보리수어린이합창단은 지난해 12월 송년공연을 통해 처음 대중과 만났으며, 올해 2월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제3회 전국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에 참가했다. 3월에는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길 위의 나라' 다큐 음악극에 참가해 제주도민들과 함께했다. 10월에는 한중교류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한중어린이 끼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주제주 중국총영사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 소속의 마니주 중창단은 제주불교여성합창단에서 활동했던 단원들이 약천사를 창건한 혜인대종사 입적 후 추모의 노래를 부르며 결성한 중창단이다. 지난 5월에는 전국 찬불가열창대회에 출연해 특별상(원력상)을 수상했다. (064)746-0108.

박재완 기자

특별전

동아시아 고판화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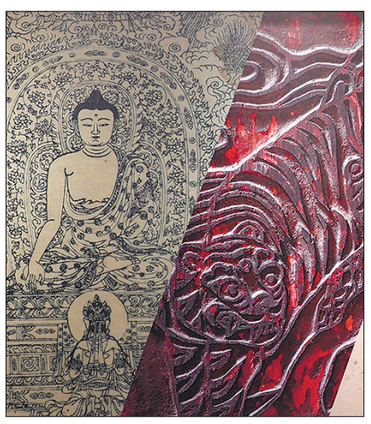
청주고인쇄전시관 12월 22일까지
원주 고판화博 내년 1월 20일까지

아시아 고판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전이 한국의 인쇄문화를 대표하는 지역 원주와 청주에서 동시에 열린다.

국내 유일의 고판화 전문 박물관인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인쇄문화의 꽃인 동아시아 고판화의 아름다움'이란 주제로 12월 22일까지 청주 고인쇄전시관에서 '고판화박물관 명품 특별전'을 개최하고, 2020년 1월 20일까지는 원주 고판화박물관에서 '판화로 보는 동아시아 고판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고판화박물관 한선학 관장은 이번 특별전 중에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천진대학에서 열린 제3회 중국 목판 년화 국제 학술대회에 초청 받아 한국 고판화박물관의 중국 년화 명품을 중국, 러시아, 일본, 체코, 폴란드, 프랑스 등 세계적인 중국 년화 소장처 학자들에게 알렸다. 그로 인해 한국 고판화박물관이 러시아 에미리타쥬 박물관등 세계적인 고판화관련 소장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박재완 기자



조선 후기 불상 발원문 망라하다

최선일 위원,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과 보살을 형상화 한 '불상'에는 다양한 복장물들이 들어간다. 복장물에는 경전부터 귀금속, 후령통과 함께 발원문도 포함돼 있다. 특히 발원문은 불상의 조성 시기와 이유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록으로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발원문은 불상 내부에 봉안된 복장물이어서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이 최근 발간한 〈조선 후기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은 가치가 크다.

총 3권으로 발간된 〈조선 후기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은 953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선집에는 총 234건(1권 62건 · 2권 83건 · 3권 89건)의 불상 조성 및 개금발원문 원문과 사진이 수록됐다.

이는 모두 최 위원이 20년 동안 직접 조사하고 수집한 것들로, 선집에는 시대별로 분류해서 게재했다. 1권은 17세기 전반이며 2권은 17세기 후반, 3권은 18세기~20세기 초반까지다.

조선 후기 조각승들의 활동과 계보들을 연구하는 최 위원은 일찍부터 발원문이 가지는 사료적 중요성을 파악했다.

20년 간 전국 사찰 불상들을 조사하면서 스님과 동료 연구자로부터 불상 발원문 사진과 복사본을 구했으며, 발원문은 틈틈이 석문(釋文) 작업을 했다. 모르는 한자는 학문적 스승인 송광사 박물관장 고경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최 위원은 "불교조각에 관련된 문헌기록인 발원문, 묵서, 사적기 등은 사찰에 비장돼 접근이 어렵다. 기존 공개된 문헌기록은 원본 사진을 보며 석문작업을 해서 오탈자가 많아 반드시 원문을 구해 보는 습관이 생겼다"면서 "당대 최고 학승이셨던 故 지관 스님이 정리하신 〈한국고승비문선집〉 같은 저서를 보면서 이 같은 작업이 후학들에게 발품을 팔지 않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선행 작업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이 〈조선 후기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총 3권, 953페이지 방대한 분량
불상 234건 발원문 원문 수록해
20년 수집… 향후에도 조사 계속
문화 · 인물사 기초 연구작업 '중요'
"발원문 선집, 누군간 해야 할 일"

이어 발원문과 같은 문헌 기록들은 불교미술사 연구 영역을 확장시켜줄 수 있다고 봤다. 실제, 발원문 등 문헌기록은 불상이 어떻게 · 누가 · 왜 조성했는지를 알게 하며, 이를 통해 당시 사찰 경제 · 문화부터 인물교류사까지 연구를 확장할 수 있게 한다.

최 위원은 "발원문은 불상을 만든 시기, 봉안처, 연화질, 시주질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불교 조각사뿐만 아니라 지역사와 인물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간기 · 전적 등 흩어진 자료들을 수집 · 집성해야 불교미술 연구가 풍성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최 위원은 〈조선 후기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을 시리즈로 계속 발간할 계획이다. 불상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최 위원은 "지금도 발원문 연구와 수집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 불교조각과 관련된 문헌 기록은 대략 400여 건에 이른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환 스님, 계정혜 연구 · 실천 선지식"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1일
인환 대종사 추모학술대회

원적 1주기…생애 · 사상 조명
"선정과 학문 통해 선교일치"
2백여 대중 참석… 스님 추모

조계종 원로의원을 지낸 인환 스님〈사진〉의 생애와 사상을 학술적으로 살펴보는 학술대회 열렸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10월 21일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만해홀에서 '호암당 인환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추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인환 스님 원적 1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학술대회에서는 인환 스님의 생애와 선학 · 율학 연구에 대해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인환 스님의 제자로서 회고록 인터뷰를 진행한 최동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호암당 인환 대종사의 생애와 스승 원허 스님과의 불연'을 통해 스님의 생애 전반을 개괄적으로 살폈다.

최 교수는 인환 스님을 "계 · 정 · 혜 삼학을 연구하고 실천한 율승, 선승, 학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환 스님은 자교오종(藉敎悟宗)으로서 선의 실천을 교리적 바탕에 뒀다. 계율과 선정의 실천을 불교학연구와 일치시켜 선교일치를 실현했다"면서 "또한 캐나다에 대각사를 개산해 북미포교를 했고, 교수 은퇴 이후에는 포교사로서 법회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그는 연구자이면서 교수였으며, 포교사이자 전계사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환 스님이 보여준 폭넓은 수행 이력은 스승인 원허 스님의 영향이라는 게 최 교수의 분석이다. 지계행은 인환 스님이 은사 원허 스님을 따른 것으로, 원허 스님 역시 안성 청룡사 용허 율사의 영향을 받았다. 평생 수좌들 지원에 헌신했던 원허 스님이 지계청정의 모범이었던 점은 청담 등 마하연을 방문했던 많은 스님들이 증언한 바 있다.



또한 원허 스님은 학승은 아니었으나 불교계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금강산불교회를 조직하고 김태흡과 석전 박한영 등의 연구자를 지원했다.

최 교수는 "인환 스님은 연구와 학술발표는 활발했으나 법맥제자 양성과 도량 개산 등은 하지 않았다. 유품도 학술 관련 서책과 문서로 이는 스승 원허의 무소유와 관련이 있다"면서 "원허 스님은 표훈사와 낙산사 주지를 역임했으나 옷 가지 1~2벌만 남겼다. 인환 스님은 그런 스승의 무소유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호암당 인환 대종사의 선학 연구와 사상'을,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호암당 인원 대종사의 계율학 연구와 사상'을 각각 발표했다.

한편, 인환 스님은 1931년 원산 출생으로 6.25한국전쟁 중 남한으로 피난왔다가 불문에 귀의하게 됐다.1952년 선암사에서 효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인환 스님은 1953년 선암사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6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4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66년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75년 '신라불교 계율사상 연구' 논문으로 일본 도쿄대 문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2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부임해 1996년 정년퇴임까지 불교대학장, 불교문화연구원장, 정각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으며, 그해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서울 삼각산 경국사 환희당 한주로 주석해오던 스님은 지난해 10월 26일 원적에 들었다.

신성민 기자

학 술 단 신

불교는 서구에 어떻게 수용됐을까

동국대 인문학연구소 · 신라문화연구소 학술대회

10월 31일 동국대 경주캠서

서구는 불교를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인문학연구소와 신라문화연구소는 10월 31일 오후 2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기념관 5층 D501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서구로 간 붓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서구에 어떻게 불교가 수용됐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연구 논문으로는 △'안티크리스트'에 보이는 니체의 불교 평가와 페시미즘(pessimism)(김영진, 동국대 불교학과) △독일 불교수용사 속의 베버 읽기-막스 베버의 종교사회학과 불교 이해(박용희, 동국대 국사학과) △미국 박물관의 한국 불교 미술품(송은석,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미국 선불교의 어제와 오늘(김희영, 대구한의대) 등이 발표된다.

발표 이후에는 김종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용태 동국대 한국불교융합학과 교수와 안환기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이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신성민 기자

불교교육연합회, 교학연구발표회

10월 31일~11월 1일 동대부여고서

불교 교육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교육연합회(회장 윤성이)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간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교장 박현숙)에서 2019학년도 임시총회 및 제49차 교학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불교교육연합회는 이번 임시총회와 교학연구발표회를 통해 종립학교 간 발전을 도모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을 함께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불교교육연합회 산하 교장 및 교법사, 재단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이번 교학발표회는 교학연구논문발표 및 연구수업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교융합교육'(권진영 교법사)을 중심으로 수업 공개 참관 및 학교 현황 관람 등이 진행된다.

한편, 불교교육연합회는 1962년 창립된 조계종 산하 불교종립학교 연합기구로, 총 12개 법인 학교 28곳(대학교 1곳 · 고등학교 12곳 · 중학교 13곳 · 초등학교 1곳)이 가입돼 있다. 종립학교 학생들의 불교적 인격교육을 위해 매년 △불교교육포럼 △교학연구발표회 △교직원수련대회 △교법사연수회 △불교학생간부수련대회 등을 실시해 왔다. 또한 종교 및 철학 교과서 개발, 불교의례와 포교방법 연구 등 관련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성민 기자

통도사 승려와 불교미술 관계 논한다

불교미술사학회, 11월 9일 추계학술대회

통도사 주석 승려들과 불교미술 관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불교미술사학회(회장 송천)는 11월 9일 오전 10시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통도사의 승려와 불교미술'을 주제로 제33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우수연구자를 시상하는 영축학술상 시상으로 시작되는 학술대회는 조인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초청강연과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발표로는 엄기표 단국대 교수의 '통도사 출신 승려들의 승탑 현황과 의의', 이선용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박사의 '통도사 진영에 표현된 가사의 특징',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현주 스님의 '통도사 대웅전 신중도 연구' 등이 발표된다.

연구자들의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와 토론자, 청중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박재완의 PhotoEssay



길은 하나

길마다 낙엽이다
낙엽을 따라 걷다가
나도 낙엽이 된다

이제 길은 하나
걸을 수 있는 길은 하나
낙엽이 되는 길
작은 바람에도 흩날리는 낙엽이 되는 길
흩날리다 흩날리다
어딘가에 쌓이는 길
바람 따라 가을이 되는 길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㊸ 하야시 일본 남장원 주지

종교인 참 역할 깨우쳐준 뜻맞는 도반

일본 후쿠오카현 고야산 신곤슈에 위치한 남장원은 전장 40미터에 이르는 세계 최대 청동 열반상이 세워져 있는 사찰로 유명하다. 발바닥 높이만 약 4미터에 이르는 청동 열반상이 건립된 것은 지난 1995년 10월의 일이었다.

이때 아시아 각국 승려 1300여명이 모여 독경하면서 천승공양을 했다. 지난 752년 이후 1200년만에 일본서 천승공양이 열반상 건립 기념으로 이뤄진 것이다.

더군다나 당시 일본서는 흔치 않게 미얀마로부터 받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남장원 주지 하야시 스님이 미얀마의 어려운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덕분이다.

사실 전장 40미터라는 길이가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실감나지 않겠지만, 청소하는데에도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1년에 네 번 밖에 청소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규모이다. 그러나 남장원이 일본인에게 유명해 진 것은 기도하면 소원 성취를 해주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곳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유인 즉 당시 40대인 하야시 주지 스님이 드림 복권 1등에 당첨되면서 부터이다. 하지만 하야시 스님이 처음부터 돈 욕심으로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복권 구입을 한 것은 아니었다.

드림 복권은 일본 후쿠오카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대회 협찬을 위한 것으로 판매 수익금중 일부를 대회 운영 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외로 판매 실적이 저조하자 하야시 스님의 거래 은행인 다이이치 간교 은행이 주최측 부탁으로 스님에게 요청해 구입한 것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뉴스거리인데, 하야시 스님의 다음 행동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스님은 상금 전액을 '후쿠오카 생명의 전화' 에 전액 기부했다. 이외에도 다른 사회 봉사단체에도 많은 돈을 보시했다.

하야시 스님의 봉사 활동은 복권 당첨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스님은 첨단 장비를 갖춘 구급차를 구입해 소방서에 기증했다. 또

복권 당첨금 전액 봉사 단체 기부해
모범 소년원생 20명 일본으로 초청
헌창탑에 스님이 준 불보살 사리 봉헌



일본 후쿠오카 남장원서 열린 하야시 스님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세계 최대의 청동 열반상 앞에서 기념 촬영한 삼중 스님과 하야시 스님(사진 오른쪽).

한 태국 실링턴 소년원을 방문해 학용품과 운동기구 등을 보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의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된 어려운 환우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말 그대로 부처님의 대자대비 사상을 온몸으로 실천했다.

기껏해야 주변의 불행한 처지에 놓인 몇 사람과 재소자 교화 활동이 고작인 내게 하야시 스님의 보살 행각은 그저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었다. 하야시 스님은 대사찰 주지로서 찾아오는 신도들만 맞는 것이 아니라, 후쿠오카를 비롯해 일본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불법과 자비 정신을 설파한다. 하야시 스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부처님이 시험을 대신 봐주거나 안전 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받기만을 바라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그보다는 먼저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단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과 정서가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소박한 이웃들과 함께 불교의 가르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야시 스님의 말에서 참종교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종교관과 삶의 방향이 일치하는 도반을 만나기가 싶지 않지만, 하야시 스님과는 너무 잘 맞았다. 하야시 스님과 나와의 첫 인연은 1997년 9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가 주지로 있던 자비사 신도 700명이 남장원을 방문해 자매결연을 맺고 기념 식수를 했다. 그 이후 일본서 재소자 포교에 관심 많던 하야시 스님은 내가 교화위원으로 있던 부산 소년원을 자주 방문했다. 그리고 전국 소년원생 중 모범수 2명씩을 선발해서 3박 4일동안 일본으로 초청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범죄자 신분인 청소년들을 더군다나 외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행히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큰 배려로 총 20명의 원생들과 일본을 아무 사고없이 무탈하게 다녀왔다. 또한 스님은 2000년 초에 자신이 미얀마서 기증받은 불보살 사리 15과를 나에게 기증했다. 계속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내가 1년전 둥지를 튼 토굴인 경주 자비사서 11월 17일 열리는 가끼루마 스님 헌창비 및 탑신에 고히 모실 예정이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하야시 스님도 기꺼이 가끼루마 헌창탑을 빠른 시간내에 꼭 친견하기 위해 경주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하야시 스님의 방문이 어느때보다도 몹시 기다려 진다.

정리=김주일 기자